

2022 02 Vol. 380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nio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 밤



가야 할 길이 어두워지고  
더 해야 할 일이 멈췄다  
하루 문이 잠기고  
성찰의 등을 켜다

피신처에서  
잘못과 죄의 가슴을 칠 때  
붉은 감실등이  
심판의 핏빛을 쏟아냈다  
후회의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등불이 꺼진 밤  
고뇌와 번민이 뒤척이다가  
새벽에 자비의 문이 열렸다

##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밤
- 03 차례
- 04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1)
- 08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2)
- 13 응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하느님 존재
- 14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4)
- 18 신간안내  
아퀴나스의 윤리학
- 19 보물찾기 / 김광서(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20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 김석영(요셉) 수사  
피를 흘리며
- 22 선교 / 양상룡(도미니코) 신부  
중국 선교의 가장 큰 조력자 정순택 대주교님
- 26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5길
- 27 가르멜 인터뷰-박종인 라이문도 신부1  
에둘러 온 길,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네!
- 32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8)
- 36 공동체 이야기 / 인천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가르멜 산길에서 뒤를 바라보며
- 39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박지현(요셉피나)  
관계의 삼각형
- 42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Blue Days 우울한 나날
- 44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5)  
2022년 4월 영적나눔
- 46 회원의 글 / 이정미(헬레나)  
노년
- 47 비둘기
- 50 미술 속 성경 이야기 / 편집부  
Domine, da mihi aquam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Ro.12.1)**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作)
- \* 2021년 <기억-신호준 마리오 박보규 가브리엘 2인전> 전시작품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0호 (2022 2.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1)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수도원

### 6. 19-20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맨발 가르멜의 확장

#### 2) 칠레에서의 창립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은 남미에 있던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들을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특히 이로 인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가 독립을 쟁취했다. 이와 더불어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다시 중남미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 관구는 여러 명의 회원을 그곳으로 파견해 새로운 수도원의 창립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때 파견된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성심의 에제키엘 신부, 예수의 에르네스토 신부, 정화의 에피파니오 신부. 이들은 먼저 페루 지역에 창립 여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난관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1899년 2월 11일 칠레로 방향을 틀었다. 칠레에서는 이들을 환대했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23일 칠레의 산티아고(Santiago)에 도착했다. 이듬해인 1900년 3월 23일 칠레 정부는 칙령을 선포해서 이들이 칠레에 잘 정착하도록 다양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1900년 4월 8일 칠레의 산티아고에 가르멜 수도원이 창립되었다.

칠레 가르멜 남자 회원들의 주요 사도직은 자신들의 성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목을 수행하고 가르멜 수녀들을 돌보는 것이외에도 칠레 전역에 있는 농장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비야델마르, 산페르난도, 멜론 지역에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서 가

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위해 가르쳤다. 더 나아가, 회원들이 본당을 맡아 일하게 되면서, 본당 사도직에 본격적으로 투신했다.

1926년 칠레 가르멜 회원들은 산티아고에 대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 대성전은 1930년에 완공되어 축성되었다. 칠레에서 이루어진 남자 가르멜 수도원 창립은 다음과 같다: 발파라이소 가르멜(Valparaíso, 1900). 이 수도원에는 1928년 또 다른 고딕 양식의 성당이 세워졌다. 비야델마르 가르멜(Villa del Mar, 1903). 여기에는 훗날 또 다른 대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졌다. 치안 가르멜(Chillán, 1905). 산페르난도 가르멜(San Fernando, 1930). 멜론 가르멜(Melón, 1941). 칠레 가르멜 회원들은 1985년 10월에 플로리다 지역에 수련 수도원을 설립했다. 이어서 1990년에는 로스안데스의 성녀 데레사 성지를 설립했다.

20세기 말 칠레 가르멜에는 희소식이 있었다. 로스안데스의 예수의 데레사 수녀가 시복되고 이어서 시성된 것이다. 로스안데스의 아우코-린코나다(Auco-Rinconada)에 있는 성녀의 성지에는 성녀의 유해를 참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볐다. 성지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가르멜 수녀원, 성지의 대성당, 남자 가르멜 수도원, 데레사 전교 가르멜 수녀들에 의해 관리되는 피정집. 칠레 가르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1997년 산티아고에 설립된 영성센터였다. ‘라폰테’(La Fonte)로 불린 이 영성센터를 통해 칠레 가르멜 회원들은 가르멜의 영성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 과

정에는 주로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칠레 교회 각지에 퍼져 가르멜 영성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칠레 교회를 대표하는 호세 마누엘 산토스(José Manuel Santos) 대주교의 가르멜 수도회 입회라는 이례적인 사건도 있었다. 그는 콘셉시온(Concepción)의 대주교 직무와 칠레 교회의 주교회의 의장직을 모두 수행한 후, 칠레 관구에 입회해서 1990년 3월 24일 맨발 가르멜 수사로서 서원을 발했으며 2007년 9월 임종하기 전까지 가르멜 회원으로 충실히 살았다.

### 3) 아르헨티나에서의 창립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시성된 직후부터 아르헨티나의 여러 곳에서는 성녀 데레사에 대한 신심이 널리 퍼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여러 지역에는 성녀의 이름이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미 1649년 코르도바(Córdoba)는 성녀 데레사를 이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다. 아르헨티나에 처음 발을 디딘 맨발 가르멜 회원은 성 알베르토의 호세 안토니오 주교(José Antonio de San Alberto, 1727-1804)였다. 그는 스페인에서 수도생활을 하다가 1780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그의 착좌를 위해 4명의 회원이 동반했다: 산타 바르바라의 호아킨 신부, 그의 형제, 성녀 데레사의 안토니오 신부, 성 요셉의 아구스틴 수사. 이들은 안토니오 주교의 착좌 후, 아르헨티나에 남아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가르멜 삶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에 호세 안토니오 주교가 라플라타(La Plata)의 대주교로 승격되면서 이들 역시 그를 동반해서 라플라타로 가서 그곳에 새로운 가르멜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로부터 근 1세기가 지난 후, 1899년 2월 몇몇 스페인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고 수도원을 창립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오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창립에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코르도바로 가서 정착했다. 그들은 창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1900년 12월 코르도바 가르멜 수도원을 창립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03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수도원을 창립했다. 수도원 창립 후, 그들은 수도원 옆에 성당을 건축해서 사목을 위한 못자리로 삼았다. 1925년에는 로사리오데산타페(Rosario de Santa Fe)에 수도원을 창립했으며, 이곳에 대성당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 대성당은 로마-비잔틴 양식의 대성당으로 1945년에 완공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가르멜 회원들은 다양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창립 활동을 벌여 아르헨티나 전역에 성녀 데레사의 카리스마를 전파했다. 다음은 창립된 수도원 목록이다: 산미겔데투쿠만 가르멜(San Miguel de Tucumán, 1938), 탄딜 가르멜(Tandil, 1951), 마르델플라타 가르멜(Mar del Plata, 1956), 알타그라시아 가르멜(Alta Gracia, 1928, 1958), 라플라타 가르멜(La Plata, 1979).

한편, 가르멜 동정녀의 마누엘 신부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관구의 관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는 아르헨티나 지역을 준관구로 승격, 독립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당시 아르헨티나 지역의 모든 가르멜 수도원들은 안달루시아 관구에 속해 있던 상태였으나, 본토의 안달루시아 관구에서 통치하기에 버거운 상황인 데다, 아르헨티나 지역의 가르멜이 성장함에 따라 준관구로서의 역량을 갖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헨티나 가르멜은 1965년 9월 27일 47명의 회원들을 바탕으로 준관구로 승격, 독립했다. 1975년에는 다시 준관구에서 총평의회 직속 코미사리아토(Comisariato)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1976년 4월 26일 아르헨티나 가르멜은 다시 안달루시아 관구에

통합되었다. 통합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수도원이 있었다: 코르도바 가르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르멜, 로사리오 가르멜, 알타그라시아 가르멜, 마르델플라타 가르멜. 1995년 5월 총평의회는 아르헨티나 지역의 관할을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관구와 폴란드의 바르샤바 관구가 통치하도록 분할했다.

2005년 총평의회는 아르헨티나에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장려하기 위해 이 나라의 상황을 연구한 후, 2005년 9월 14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아르헨티나에 설립된 수도원들을 총본부 직속 지부로 편입해서 통치하되, 수도회의 회헌과 아르헨티나의 고유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새로 설립된 지부에는 8개의 수도원이 배속되었다.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리고 우루과이 지역 가르멜 회원들의 양성을 위해 관구 간 연합 양성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탄달 수도원이 수련소 역할을 맡았으며 라플라타 수도원은 학생 수사들의 철학 양성을 위한 학생 수도원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새로운 성소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양성 받은 회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수도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헨티나 가르멜에는 그 지역 출신의 소수 회원들만 남아 수도 생활을 이어갔다.

#### 4) 우루과이에서의 창립

우루과이에 가르멜이 창립된 데에는 성심의 콘스탄시오(Constancio del Sagrado Corazón) 신부의 공이 컸다. 그는 1910년에 이곳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년을 체류하며 이곳에 가르멜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모범적인 삶으로 인해 가르멜 회원들은 마침내 1913년 몬테비데오(Montevideo)에 수도원을 설립할 수 있었

다. 교황청은 1916년 8월 20일 이 수도원의 설립을 정식으로 승인했으며, 우루과이 정부 역시 1917년 4월 18일 이를 승인했다. 1929년 가르멜 회원들은 고덕 양식의 프라도 성당을 건립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부족으로 인해, 결국 설립된 지 5년 만에 수도원 건물과 성당을 몬테비데오 대교구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후인 2009년 가르멜 회원들은 다시 이 건물들을 되찾게 된다.

1943년 가르멜 회원들은 카라스코 산의 성 요셉 경당을 인수한 바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현대식 성당과 작은 수도원을 설립했다. 1987년에는 회원들의 양성과 영성 생활을 증진하기에 충분한 보다 큰 수도원을 세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곳에 초기 경당을 복원했다. 1995년에는 수련소와 영성센터 건립을 염두에 두고 플로리다 외곽에 17헥타르의 대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곳에 수련소를 설립해서 1997년 10월 21일 축성했다. 현재 이곳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가르멜 회원들의 양성을 위한 수련소가 운영되고 있다.

#### 5) 브라질에서의 창립

브라질에서 가르멜의 창립은 포르토알레그레의 교구장인 클라우디오 곤살베스 폰세(Claudio Gonçalvez Ponce de León)의 공이 컸다. 그는 우루과야나(Uruguayana)에 가르멜을 창립하도록 콘스탄시오(Constancio) 신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이로 인해 가르멜 회원들은 1911년 그곳에 진출해서 수도원과 더불어 고덕 양식의 대성당을 건립해서 가르멜 카리스마의 전파를 위한 못자리로 삼았다. 또한, 1913년에는 포르토알레그레에 수도원과 고덕 양식의 대성당을 건립했다. 또한, 같은 해에 리오그란데(Rio Grande) 지역에 진출해서 수도원을, 1939년에는 대성당을 건립했다. 한편, 1937년에는 산타마리아(Santa

María)에 진출해서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로부터 한참 후인 1963년에 푼도(Fundo)에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가르멜 회원들은 이곳에 회원들의 초기 양성을 위한 소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1968년에는 포르토알레그레의 라글로리아(La Gloria)에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이를 학생 수사들의 신학 교육을 위한 학생 수도원으로 운영했다. 또한, 이곳에 피정집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했다. 브라질 가르멜 회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플로리아노폴리스 가르멜( Florianopolis, 1972), 쿠리티바 가르멜( Curitiba, 1973), 론드리나 가르멜(Londrina, 2001)을 설립했다. 이 수도원들은 모두 스페인의 부르고스 관구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 이르러 브라질에는 부르고스 관구로부터 독립된 브라질 남부 코미사리아토(Comisariato)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준관구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아빌라 총회에서 관구로 승격되었다.

한편, 로마 관구는 스페인 회원들과 별개로 1911년 브라질에 진출해서 다음과 같은 수도원들을 설립했다: 리오데자네이루 가르멜(Rio de Janeiro, 1920), 산파블로 가르멜(San Pablo, 1923), 산로케 가르멜(San Roque, 1947). 또한, 토스카나 관구는 카라팅가 가르멜(Caratinga, 1951), 트라베사오두 캄푸스 가르멜(Travessao do Campos, 1971)을 설립했다. 네덜란드 관구 역시 브라질에 진출해서 벨로오리존테 가르멜(Belo Horizonte, 1958), 일레우스 가르멜(Ilheus, 1958)을 설립했다. 로마 관구, 토스카나 관구, 네덜란드 관구에서 설립된 이 수도원들은 일레우스 수도원을 제외하고 모두 1978년 로마의 총평의회 직속 지부로 통합되었다. 1981년 총평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남동부 코미사리아토를 설립했다. 그리고 2003년 아빌라 총회에서는 이를 관구로 승격시켰다. 한편, 일레우스 수도원은 브라질 남동부 코미사리아토로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네덜란드 관구 소속으로 남았다. 그 와중에 토스카나 관구는 1987년 호안페쏘아(Joan Pessoa)에 새로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2009년 브라질 남동부 관구는 2개의 신설 수도원을 설립했다. 네덜란드의 한델 가르멜(Handel)과 브라질리아(Brasilia) 가르멜이 그렇다.

## 6) 콜롬비아에서의 창립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에 포파얀(Popayán)에 수도원이 설립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못해 폐쇄되었고, 그 후 가르멜이 다시 진출하기까지 콜롬비아에서는 2세기를 기다려야 했다. 콜롬비아에 남자 가르멜 회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이미 콜롬비아에 진출해 있던 가르멜 수녀들의 요청 덕분이었다. 비야데레이바(Villa de Leiva) 가르멜 수녀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남자 가르멜 회원들은 1911년 콜롬비아에 다시 진출하게 된다. 첫 번째 남자 가르멜 수도원은 1911년 비야데레이바에 세워졌다. 그 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많은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손손 가르멜(Sonsón, 1914), 포파얀-팔미라 가르멜(Popayán-Palmira, 1914-1917), 메델린-만리케 가르멜(Medellín-Manrique, 1920), 보고타 가르멜(Bogotá, 1929), 카르타헤나 가르멜(Cartagena, 1931), 페레이라 가르멜(Pereira, 1949), 메델린-몬티첼로 가르멜(Medellín-Monticelo, 1952), 칼리 가르멜(Cali, 1954), 쿠쿠타 가르멜(Cúcuta, 1954), 보고타-테초 가르멜(Bogotá-Techo, 1956). 콜롬비아 가르멜 회원들은 1989년 기존의 보고타 가르멜 수도원 앞에 학생 수사들의 신학 양성을 위한 학생 수도원을 새로 건립했다.

(다음 호에 계속)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2)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권

### 레오니가 견디어낼까?

더 많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레오니가 수도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잔 라넬<sup>1)</sup>은 셸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냈다. “방금 전에 레오니를 만났어. 레오니가 3일 동안은 울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마가렛 메어리 복녀 축일 이후로 한결 좋아진 것 같대. 난 한 시간 동안 수련장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 대화 내용을 (내 동생) 마리<sup>2)</sup>에게 말해주려고 해. 그러면 마리가 다음번 수녀원 방문 때 그것에 대해 너에게 말해줄 거야. 수련장 수녀님은 나에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해주셨어. 왜냐하면 당신이 레오니의 인내심을 단언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네.”

1894년 10월에, 잔의 여동생 마리 게렝은 셸린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적었다. “잔 언니가 레오니 언니를 만나보았다고 해. 레오니 언니 지난 3일 간 한결 좋아졌대. 하지만 수련장님이 (레오니 언닐) 포기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레오니 언니의 그렇게 한결 좋아진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게다가 가없는 레오니 언니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끔찍한 유혹을 겪고 있어. 성체성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존에 의구심이 든대. 난 레오니 언니가 가

없이 느껴져. 그래서 언닐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어. 수련장님이 레오니 언니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은 성무일도 바치는 시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언닌 성무일도를 따라 바치는 데 있어서는 폐를 거의 끼치지 않기 때문이지.”

마리 게렝이 전하는 것처럼, 레오니가 성무일도를 “따라 바치는 데 폐를 거의 끼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의심할 여지없이 레오니는 천성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성무일도를 따라 바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성무일도서에서 시편, 화답송, 기도문, 보편지향기도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그녀가 지닌 노르망디 출신 상식에도 불구하고, 지능에 있어서는 타고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레오니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오니 입장에서 어떤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레오니는 회심했기 때문이다.

레오니는 확실히 복잡한 문제들이나 추상적인 분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격변화는 레오니에게 있어 십중팔구 히브리어만큼이나 낯설었을 것이다. 레오니는 탐구하는 성향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 제 머리를 괴롭히지 않고서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1) 레오니의 외사촌, 외삼촌 이시도르의 첫째 딸.  
2) 마리 게렝

레오니가 젊은 시절부터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맡기는 가운데, 얼마나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그러우면서도 사랑스럽게 수용하는 쪽으로 점진적인 변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잘 살펴보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의 길을 따르는 법을 익혔다.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1895년 1월에, 데레사가 가르멜 수녀원의 언니들 모두를 대신해서 레오니에게 새해 인사를 써 보내기로 결정되었다.

난 올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언니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무척이나 기뻐. 지난해는 천국을 향해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한 해였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육안으로는 올려다볼 수 없는 그곳”을 보셨잖아. 그분께선 천사들의 음악소리를 들으셨고, 그분의 마음은 그 소리를 이해하셨지. 그분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하신 보상 속에서 기뻐하고 계셔. 우리 차례 역시 다가오겠지. 아마도 우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올해의 마지막을 결코 보지 못할 거야. 머지않아, 아마도, 우리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겠지. 오, 우리가 영원한 고향을 향한 여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니 멋지지 않아!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난 언니가 보낸 편지들을 읽고 무척이나 기뻐. 그리고 그 편지들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었지. 난 하느님께서 언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언니를 당신 은총으로 흠뻑 적셔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분께선 언니가 당신에 대

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신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보신 것이 바로 그분께서 언니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인 셈이야. 왜냐하면 바로 고통을 통해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작은 언니, 자매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를 잊지 말아줘. 막내가 정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하찮으면서도 꼴찌가 되는 것에 언니처럼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청해줘.

### 셀린이 즈느비에브 수녀가 되다

1895년 2월 5일에, 셀린이 수도복을 착복했다. 원장 수녀의 요청으로, 셀린은 수도명을 성면의 마리 수녀에서 수녀원 창립자로서 1891년에 선종한 성녀 데레사의 즈느비에브 수녀를 기념하기 위해 성녀 데레사의 즈느비에브 수녀로 바꾸었다. 셀린의 동료 수녀들은 그러한 새 이름을 “즈느비에브 수녀”로 축약시켰다.

셀린은 가르멜 수녀원에 합류하면서, 수녀원에 사진 장비를 가지고 왔다. 바로 이 때문에 레오니는 가르멜의 언니 동생들이 자기들의 방문회 수녀에게 보내주었던, 여러 해에 걸쳐 찍은 수많은 사진들 속에서 사랑하는 언니 동생들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셀린의 수도복 착복을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셀린에게 글을 써 보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소망이 실현되었구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섯 모두 수도자니까 말이야! 어머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

을까? 그리고 어머니 당신의 크나큰 믿음으로 우리 중의 하나가 방문회 수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가엾은 작은 방문회 겁쟁이가, 자기를 온전히 사랑에 내어 맡기기를 주저하면서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 (하지만) 결국엔 난 내어 맡길 거라 희망해.”

일종의 도전처럼, 레오니가 스스로에게 말했던 “결국엔 난 내어 맡길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레오니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고 있는 고집스러움, 의지력을 명확히 살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고집의 목표가 바뀌었다. 레오니는 더 이상 언짢은 기분의 화살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로 쏘아대면서 변덕스럽게 요구만 하는 어린 여자애가 아니었다. 이제 레오니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레오니는 자기의 모든 서투름과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거침없이 돌진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결심했던 것이다.

## 레오니가 서두르다

캉의 수녀원에서 레오니의 서원 연기가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레오니는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심지어 르망의 방문회 수녀원에로의 진출을 청하는 것까지 고려해보았다. 레오니의 언니 동생들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1895년 4월 28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데레사는 레오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다.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난 언니가 진짜 성소, 곧 방문회 회원으로서 뿐 아니라 캉의 방문회 회원으로서의 성소를 찾아냈다고 깊이 확신하고 있어. 그런 확

신과 관련해서 하느님께선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언니의 진짜 성소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난 르망에 가려는 언니 생각을 유혹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언니를 구해 주시라고 기도해.

오, 그러한 서원의 연기라고 하는 시련이 언니를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는지. 하지만 그런 시련은 누군가 서원을 준비하는 데 보낸 시간이 더 많을수록 더 기뻐해야만 한다고 할 정도의 크나큰 은총인 셈이지. 난 서원하기 전 몇 개월 동안 내 영혼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기억하고 있어. 그때 수련기 마지막 해였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장상 신부님이 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 그것 때문에 난 꽤 많이 상처 입었지. 하지만 어느 날, 하느님께선 그렇게 거룩한 서원을 말하는데 있어서 초조해 하는 나의 마음에 엄청난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바라보게끔 하셨던 거야. 그때 난 나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지. 내가 수도복을 착복했을 때, 수녀님들은 나에게 레이스와 꽃으로 장식된 순백색의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셨어. 하지만 내 혼인 예식을 위해선 그런 예복을 주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그런 예복은 나 혼자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데 말이야. 예수님께선 당신 말고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으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 도움으로 난 열정을 다해 일을 시작하려고 해. 그 누구도 내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난 그런 노력들을 내 마음속

에다가 보이지 않게 감출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난 나 자신이 잊혀지게끔 할 거야. 난 예수님의 눈길 말고는 날 바라보는 그 어떤 눈길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별 불일 없고, 지능과 재능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난 다음과 같은 <준주성범>의 권고를 실천에 옮기고 싶었어. 곧 “이 사람은 한 가지 것에서 영광을 차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 밖의 다른 것에서 영광을 차지하게 하라. 하지만 너로 말하자면, 오로지 너 자신을 업신여기는 데에, 내 뜻과 내 영광에다만 네 기쁨을 두라” 그리고 다시, “너에게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배워라. 무시당하는 것을 사랑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라.” 이 모든 권고를 생각하면서, 난 내 영혼 안에 크나큰 평화를 느꼈어. 난 이러한 권고가 진리이고, 평화였음을 알았던 거야. 난 더 이상 서원 날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혼인 예복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 신부를 찾으러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난 틀리지 않았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 소망, 나의 전적인 자아포기에 만족하셨거든. 그분께선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빨리 나를 당신과 하나 되게끔 해주셨지.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께선 날 그때와 같은 길을 따라 인도하고 계셔. 난 오직 한 가지만 바랄 뿐이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작은 언니, 내가 언니를 영적 지도해주었으니까, 이젠 날 위해 기

도해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통찰력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말아야.

## 세 번째 좌절

1895년 7월 20일에, 레오니는 칸의 (방문회) 수녀원을 떠났다. 허약한 건강상태, 엄격한 규칙, 여전히 불안정한 성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문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서른두 살이었다. 언니 동생들 모두가 가르멜 수녀원에 있었기 때문에, 게렝네 가족이 레오니를 리지외에 있는 집으로 맞아들였다.

바로 그날, 데레사는 라 뤼스에 머물고 있던 게렝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 보냈다. “우린 가엾은 레오니 언니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지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께선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인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당신께선 어찌하여 저희를 저버리셨습니까?’ 혹은 동산에서 고통 중에 하셨던 기도인 ‘나의 하느님, 저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말고는 다른 어떤 기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데레사는 다음 날 편지를 이어서 적었다. “어제 전 마리(게렝)가 레오니 언니와 함께 (수녀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끝마치지 못한 채 놓아두었어요. 우린 레오니 언니를 보았을 때 감격에 겨웠어요. 레오니 언니 너무 격하게 울음을 터트렸고, 그 바람에 우린 언니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요. 결국엔 레오니 언니 우리 시선과 마주쳤지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 라 뤼스에서 레오니

레오니는 게렝 가족과 함께 머물기 위해 라 뤼스로 떠났다. 1895년 7월 28일에, 게렝 부인은 마르탱 씨 선종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데레사에게 글을 적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사랑하는 레오니에 대한 이야기란다. 글썄, 정말로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앤 확실히 나쁘게 행동하지 않는단다. 처음엔 기복이 있었지. 이틀이나 삼일 간은 아주 기분이 좋아보이다가, 그러고 나선 다시 우울해졌거든. 우린 레오니를 즐겁게 해주고 그 애의 마음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단다. 특히 마리가 레오니의 마음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지.

어제, 난 레오니가 코바늘 뜨개질 패턴 만드는 법에 대해 묻는 바람에 기뻐한다. 그 앤 아직까지 그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지. 하지만 난 놀라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코바늘로 뜨개질 패턴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리고 난 레오니가 만드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그 앤 그 일에 무척이나 열심히 집중했고, 그래서 적어도 그 애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잠깐 동안에는 망상에 빠져있진 않는구나. 레오니 더 이상 라 뤼스에서 지내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아. 게다가 며칠 더 머무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 같구나. 요약하자면, 내가 전한 소식들은 레오니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이란다). 폴린하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두 처자들에게 그렇다고 말해주렴.

데레사, 우린 금요일 저녁에 매서운 폭풍우를 경험했지! 식사 중이었단다. 잔이 무서워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마리를 꼭 잡았어. 나의 경우엔, 마치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일어나서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소리쳤지. 그 장면은 우리가 레오니를 덧붙이면서 더 이상하게 되고 말았단다. 왜냐하면 레오니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배가 고파기 때문에 한 입도 놓치지 않고 있었거든. 네 외삼촌은 웃음보를 터트리곤 말았지.

라 뤼스에서 휴가 중이었던 이들은 리지외로 되돌아왔으며, 레오니는 게렝네 가족 저택의 자기 방으로 되돌아왔다. 1895년 8월 15일에 마리 게렝이 성체의 마리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고서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을 때, 레오니에겐 레오니 자신이 머물렀던 수녀원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일어났다. 때때로 “다른 이들과 같지 않았던” 레오니에게 신경쇠약 증세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다. 마리 게렝은 폴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레오니 언니의 본성은 참는 것이 불가능한 가엾은 본성이예요.” 하지만 레오니가 자신의 혼란스러우면서 변덕스러운 본성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런 본성이 수도생활에 합류하려는 고집스러운 결정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하느님 존재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理性)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인과율(因果律), 즉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야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宇宙)라는 큰 집을 지으신 조물주 하느님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치(理致)에 어긋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태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데 자전(自轉)하면서 공전(公轉) 즉 태양 주위를 돌 때, 어떤 때는 똑바로 비추고, 어떤 때는 비스듬하게 비춰서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간 공기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공기의 움직임 곧 바람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온도 변화가 있고 태양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므로 결국 하느님이 계셔야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맨 윗대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제1원인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태어나셨습니다. 맨 윗대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제1원

인이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계속 조상의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는 불교의 윤회설(輪廻說)은 순환모순(巡還矛盾)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자존자, Ens a Se)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기(電氣)는 빛과 열과 힘을 내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여쭙봤을 때, "나는 있는 나다." 즉 "야훼" (탈출 3, 14)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산에 있는 나무를 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만드신 하느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인 그 나무를 만드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질서를 보아서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좌충우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깜깜한 데서는 우리의 눈동자가 점점 커 집니다. 빛이 많이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환한 데서는 눈동자가 점점 작아 집니다. 빛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동 조리개인 눈을 만드신 분은 전능(全能)하신 우리 하느님뿐이십니다.\*

\* 자서전 연구 \*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34)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 4. 내적 명령의 말씀들

성녀는 황홀경 중에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를 두고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말씀은 제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5절). 성녀는 이보다 좀 더 뒤에 이런 주님의 내적인 말씀들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는지, 그 말씀이 어떤 효과들을 수반하는지 설명했다. 이 경우,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이제 네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 오직 천사들과 대화하여라” (상동).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성녀에게 긴급하고 결정적인 명령의 톤으로 전달되고 있다: “나는 이제 네가... 원치 않는다” (ya no quiero que...).

더 나아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는 성경의 반향이 미세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사도 바오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필리피 교회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다. “우리의 대화는 천상에서 있게 될 겁니다” (성녀 데레사 시대의 대중 라틴어 성경에 따른 구절). 그러나 이 내적인 말씀에서 성녀 데레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내용보다도 ‘효과’에 있었다. 주님의 말씀은 발설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절). 주님의 말씀은 성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 잊히지 않았다.

### 제25장: 내적인 말씀들 어떻게 이를 식별할 수 있을까? 성녀가 경험한 문제

본 장의 주제는 신비적인 기원을 갖는 ‘내적 말씀들’ (hablas interiores)이다. 제목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은 들리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어떤 방법과 양식으로 영혼에게 일깨우시는지 다룬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다뤘다. 비록 제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장은 이뿐만 아니라 성녀가 자신의 경우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식별했는지도 소개했다.

성녀에게 있어서 본 장에 선행하는 24장에서 언급한 내적 말씀은 결정적이다. 그 말씀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신비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그 기원은 애매모호하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성녀에게는 내적 말씀들이 자주 들리곤 했다. 이를 두고 성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주 일상적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 “이 말씀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상동).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동). 그럼에도 성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청각을 통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상동). “그걸 듣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다 쓴다 해도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상동). 거부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녀는 말한다.

이는 분명 어떤 일상적인 흐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성

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신부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상동)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멈춰서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신비적인 개인사를 이해하기 위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성녀는 이 점을 자신의 대화 상대자에게 말하고 있다. 본서에서 기본적인 대화 상대자는 언제나 틀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였다. 본 장은 높은 수준의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강력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성녀는 자신이 선호하는 이 대화 상대자와 함께 ‘나와 너’ 라는 지극히 내밀한 대화 속에서 이를 설명했다.

성녀는 이 점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성녀는 이 신비적 말씀들의 본성과 이를 어떻게 식별할지 하는 점을 설명했다(1~4절). 다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과 관련된 극적인 에피소드에 대해 언급했다(14~22절). 다음은 본 장의 스케마이다.

- 1절: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 2절부터 그 이하: 이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들. 이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3~9절: 자기 영에 있어 가능한 비정상적 상황들로부터 이를 식별하기 위한 심리적 기준들.
- 10~14절: 가능한 악마적 개입들로부터 이를 식별하기 위한 신학적 기준들.
- 14~22절: 대략 1555~1559년에 성녀가 체험한 드라마와의 비교(42~44살).

## 1. 신비적 말씀들에 대한 식별

이 경우, 성녀 데레사는 참된 말씀을 거짓된 말로부터 식별하기 위해 상당히 다른 두 가지 문제를 대면했다. 이를 각각 다뤄보기로 하자.

첫째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녀에게 제기한 새로움과 예외적인 특징이란 문제이다. 성녀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육체의 청각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영의 가장 깊은 곳” 에서 들은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인 식별’ 이라고 할 수 있다.

성녀는 다양한 요소로 오염된 외부 환경 속에서 식별해야 했다. 이단적인 조명주의 자들과 거짓 신비가들이 전하는 모호한 가르침으로 인해, 의심 많은 종교 재판소의 현존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악마가 인간 정신 안에 개입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영적 조언자들이 보인 잔인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성녀는 잘못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녀는 두 번째 수준의 식별을 시도해야 했다. 그것은 ‘신학적 식별’ 이자 ‘반(反)미신적 식별’ 이었다.

이 두 가지 식별(심리적, 신학적)은 완벽히 한정된 상태에서 그 설명이 이루어졌다. 첫째, 인간 심리의 복잡함과 가능한 비정상적 상태에 직면해서 제시되었다. 이 점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성 자체가 그런 말을 지어내는 경우 -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또는 자기가 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경우 등을 설명 하렵니다” (2절). 둘째, “그것이 선한 영인 경우와 악한 영인 경우” (상동), 내적 말씀의 기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가설인, 악령이 인간의 영 안에 개입해 들어온다는 데서부터 설명하고 있다.

심리적 식별에 있어 근본적인 기준은 신비적 말씀들이 드러내는 분명한 효과적인 힘이다. 성녀에 따르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인 동시에 효과입니다” (3절). 또한,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의 말씀은 설령 신심을 일으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나무라시는 말씀이라도 첫 말씀에서 이미 영혼을 주님 쪽으로 집중시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며, 영혼에게 깊은 감동과 빛,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영혼이 메마름과 무미함, 혼란 또는 근심 중에 있어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손으로 씻은 듯이 가시게

해 주시고 그 이상의 일도 하십니다” (상동). 이에 반해, 거짓 가운데 있고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악령의 가능한 개입에 직면해서 신학적인 식별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신비적 말씀과 악마의 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 이 점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이 악마한테서 나올 때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함은 물론, 아주 언짢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일은 제게 두세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서는 그것이 악마라는 걸 제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 때에는 크나큰 메마름이 영혼에 남겨짐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하느님의 허락하심으로 당한 큰 박해와 온갖 내적 고민이 한창일 때 느낀 불안과 비슷한 불안을 느낍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악마는 가끔 저를 성가시게 구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는 불안입니다. 영혼은 저항하고 뭔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초조하고 근심에 싸입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에게 말하는 것은 언짢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영이 다른 영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10절).

하지만, 성녀에 따르면, 결국 절대적인 기준은 믿음과 함께 “교회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더불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 내적 말씀과 성경 간의 아주 작은 차이 앞에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악마의 수작이라는 걸 폭로하는 데 충분히 분명한 표시이니, 이때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보증한다 해도, 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혼이 절대로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며 믿음의 단 한 가지 조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천의 죽음을 견딜 각오가 있을 때, 악마는 이런 영혼을 속일 수 없

고 또한 하느님께서도 그런 일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2절). 다시 말해 성녀에게 있어서 신비 체험과 교회 기관 사이의 차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었다.

## 2. 성녀 자신의 개인적인 드라마

이제 성녀는 이론적인 설명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힘든 역사로 이야기의 초점을 옮겨갔다. 모든 것은 보르하의 프란치스코 신부의 틀림없는 판단으로 인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에 따르면, 성녀에게 일어난 일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영에 저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 간디아의 거룩한 공작은 1554년 성녀가 아직 “내적 말씀들”에 대해 알지 못하던 시절에 개입했다. 이 둘은 그로부터 2~3년 후인 1557년 봄에 두 번째로 만났다.

하지만 바로 1557년에 성녀의 새로운 고해신부인 프라다노스 신부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그는 아빌라를 떠나야 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성녀에게 신비적인 말씀이 일상적으로 자주 들리기 시작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심지어 이 신비 현상은 기도 밖에서도 일어나곤 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저는 악마가 이렇게 자주 제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위로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드리려고 고독한 시간을 갖지 않게 된 때부터 주님께선 다른 대화 중에 저를 거둬의 상태로 이끄시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일을 말씀하셔서, 괴롭든 말든 저는 그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6절). 이는 주님의 신비로운 말씀이었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실상 저도 스스로 체험하여 알게 되기 전까지는 듣고 깨닫는 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9절). 하지

만, 당시 성녀는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그때는 아직 현시의 은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18절)

그 후 성녀에게는 어두운 날들이 이어졌다. 새로운 고해신부(아마도 이때는 이미 예수회원인 발타사르 알바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녀의 이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모인 조언자들 전체가 성녀가 체험한 내적 말씀들을 악마적인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함께 아빌라의 어느 ‘성당’에 모여 상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성녀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제가 합당한 이유로 온전히 신뢰하던 몇몇 분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분들 중 단 한 분과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그분의 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제게 베풀 구제 방법을 진지하게 의논하셨습니다” (14절).

초기의 조언자 두 명(가스파르 다사, 프란치스코 살세도)이 모두 성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으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성녀를 동반하던 5명의 지인 모두가 재판관처럼 이 판결을 극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이에 성녀는 한탄스러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펍 오래전부터 영성체를 못하였고 제 모든 위로였던 고독마저 누리지 못하고…” (15절). “모두가 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동).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곤 한 분도 없었습니다” (상동). 당시 성녀는 일종의 양심의 감금 상태에 머물며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2년간 계속되었으며 그 동안 저도 끊임없이 그것을 주님께 청했습니다” (상동). 성녀는 본 장의 서두에서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 “저는 두려움을 갖고 2년 가까이 이런 말씀에 저항해 왔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저항하지만,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1절).

이 모든 것은 신참인데다 아직은 너무 젊은 성녀의 고해사제인 발타사르 신부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성녀가 겪고 있는 체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5명에 맞설 만한 힘이 부족했다. 당시 느꼈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는 제 고통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기도도 독서도 하지 못하며 격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또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아닌가 떨면서 온전히 혼란에 빠져 지친 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홀로 있었습니다” (17절).

바로 이 순간, 한 마디의 내적인 말씀이 이런 절망스런 풍경을 순식간에 흩어버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고통 중에 있을 당시, 그때는 아직 현시의 은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다음 말씀만으로 제 고뇌는 가시고 저를 완전히 안심시키기에 넉넉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딸아. 나다.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 하지만, 이 몇 마디 말씀에 제 영혼은 고요해졌으며, 힘과 용기, 확신, 평온함과 빛으로 한순간에 온전히 변해버려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온 세상과 맞설 수 있을 것처럼 느꼈습니다” (18절).

성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세심하게 설계된 식별 기준들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내적 말씀의 힘은 성녀에게 압도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신학자들도 악마들도 더는 그 말씀에 저항할 수 없었다: “저는 만물의 주님 덕분에 그들에 대해 완전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기에 그들에 대해선 이제 파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0절). 한편, 신학자들에 대해 성녀는 이야기를 끝내며 다음과 같이 희화화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틀림없이 악마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분들이 악마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22절). (다음 호에 계속)

\* 신간 안내 \*

## 아퀴나스의 윤리학

저 자: 스테픈 포프 외 27명의 토마스 학자

옮긴이: 이재룡, 윤주현, 안소근, 김도형

출판사: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

분 량: 대형판으로 670페이지

### 아퀴나스의 윤리학



한국성토마스연구소

내 용: 본서는 성 토마스의 대표작인 『신학대전』 작품의 절반 분량을 넘는 제2부(윤리신학) 전체를 심도 있게 소개한 대작(大作)이다. 본서의 번역은 이재룡 신부, 윤주현 신부, 안소근 수녀, 김도형 교수가 맡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성 토마스의 윤리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지만, 성 토마스의 방대한 윤리신학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은 본서가 처음이다.

『신학대전』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제2부는 다시 제1편과 제2편으로 나뉘는데, 제2부 제1편에서는 인간의 행복, 인간적 행위, 정념, 덕, 죄, 자연법, 은총 등 10

개의 주요 주제가 다뤄지고, 제2부 제2편에서는 신앙, 희망, 사랑이라는 대신덕과 현명, 정의, 용기, 절제라는 사추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악습들이 세밀하게 다뤄지고 있다. 본서는 이런 방대한 윤리신학을 담고 있는 『신학대전』 제2부 전체를 각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서는 28명에 이르는 현대의 대표적인 토미즘 학자들이 각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각각의 덕이 고대 그리스,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각 교부들의 신학에서 어떤 기원을 갖고 있으며 시대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 개념이 풍요롭게 진화했는지 세밀하게 고찰, 제시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세기 현대 윤리신학, 특히 도미니코 학파, 구속주회, 예수회의 윤리신학적 전망에서,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각각의 덕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성 토마스의 신학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 신학이다. 이미 19세기 후반의 여러 교황들, 특히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과 무신론, 근대주의, 계몽주의 등에 맞서 교회를 비롯해 현대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건전한 철학이자 신학으로 성 토마스의 사상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후, 현대 신학의 큰 흐름은 성 토마스를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라너, 이브 콩가르, 가리구 라그랑주, 세뇌 등은 성 토마스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 예컨대 대신덕, 사추덕, 악습, 습성, 정념, 욕구, 은총 등은 근본적으로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윤리신학의 근본 뿌리를 비롯해 십자가 성 요한의 영성의 근원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모든 신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

\* 보물찾기 \*



## 목마른 영혼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4,10.14)

완덕은 성덕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또는 성공적으로 수덕행위를 실행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사랑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그분께 응답하면서 만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고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눈길과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비로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을 찾아 영적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에 빠진 영혼이며 끝없이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은 고정된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과의 내밀한 친교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부르시는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내면의 중심은 조건 지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영성을 발견하는 기쁨의 여정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느님을 찾는다면 사랑하는 님께서는 그녀를 훨씬 더 많이 찾으시며”  
(『사랑의 산 불꽃』 제3노래, 28)

\* 성인의 시 \*



## 피를 흘리며 Vertiendo sangre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피를 흘리며 계시누나  
애 도밍길료야  
내사 까담 모르겠다
2. 네게 묻노니  
하 맑으시길래  
죄 없으시길래  
이분을 다스린다더나  
내사 모르겠다
3. 욕심이라면 크기도 했지  
날 많이 사랑하시는  
나는 그 까담 모르겠다  
애 도밍길료야
4. 나시자 마자  
형벌이로구나  
그렇다 악을 씻으려고  
죽어가시는구나  
오 정말 정말  
위대한 목동이로구나  
애 도밍길료야  
내사 까담 모르겠다

5. 깨끗하신 아기인 걸  
너 보지 못했더나  
-브라실료와 요렌떼가  
나한테 벌써 얘기했는 걸요-  
이분을 사랑 앎는다면  
그야말로 큰 일일다  
애 도밍길료야  
내사 까담 모르겠다

### 해설

교회 전례력에서 2월 2일은 예수 봉헌 축일인데, 전에는 이날을 <성모취결례축일> 또는 <예수 할손례축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이날까지 성탄시기로 지냈는데, 서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 전통이 남아서 이때까지 성탄 구유와 장식을 성당에 두는 데도 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현재 세계의 모든 가톨릭 전례력은 예수 공현 대축일 다음 주일인 예수 세례 축일까지 성탄시기로 지내고 그 다음날부터 연중시기로 지내고 있다.

아브라함 이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이

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의 표시로 남자 아이는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割禮)를 받아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드님 역시 태어난 지 여드레 되던 날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되자, 아기 부모는 아기 예수를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루가복음 2장 21~22절 참조)

성녀 데레사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성녀는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던 당시의 그 현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으로 이 시를 썼다.

1절에서 시인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예수가 할례를 받으면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곁에 있는 목동인 도밍길료에게 '내사 까닭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머리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절에서 '네게 묻노니/ 하 말씀시길래/ 죄 없으시길래/ 이분을 다스린다더냐/ 내사 모르겠다'고 푸념하듯 말하는데, 문맥상으로는 곁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듯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길래 당신의 아드님이신 저 아기에게 저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뜻이 그 말을 듣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말처럼 느껴진다.

3절에서 시인은 청자(聽者)를 바꾸어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아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 같다. 죄 많은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겁 없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푸념 어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강생의 신비>를 이해 못하겠다고 거듭해서 어린 목동 친구인 도밍길료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4절에서 시인은 '나시자마자/ 형벌이로구나/ 그럴다 악을 씻으려고/ 죽어가는구나' 하며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런 아기 예수님을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동으로 바라보며 관상(觀想)한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는 도밍길료에게 그래도 자신은 <강생의 신비>를 못다 알아듣겠다고 말한다.

5절에서 시인은 이렇듯 순진무구하신 아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는데, 곁에 있던 어린 목동 친구 도밍길료가 자신의 친구들인 브라실료와 요렌페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시인을 위로하려 한다. 천상(天常) 시인인 성녀는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이분을 몰라보고 박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걱정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 절에서까지 끝끝내 자신은 <강생의 신비>를 다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듯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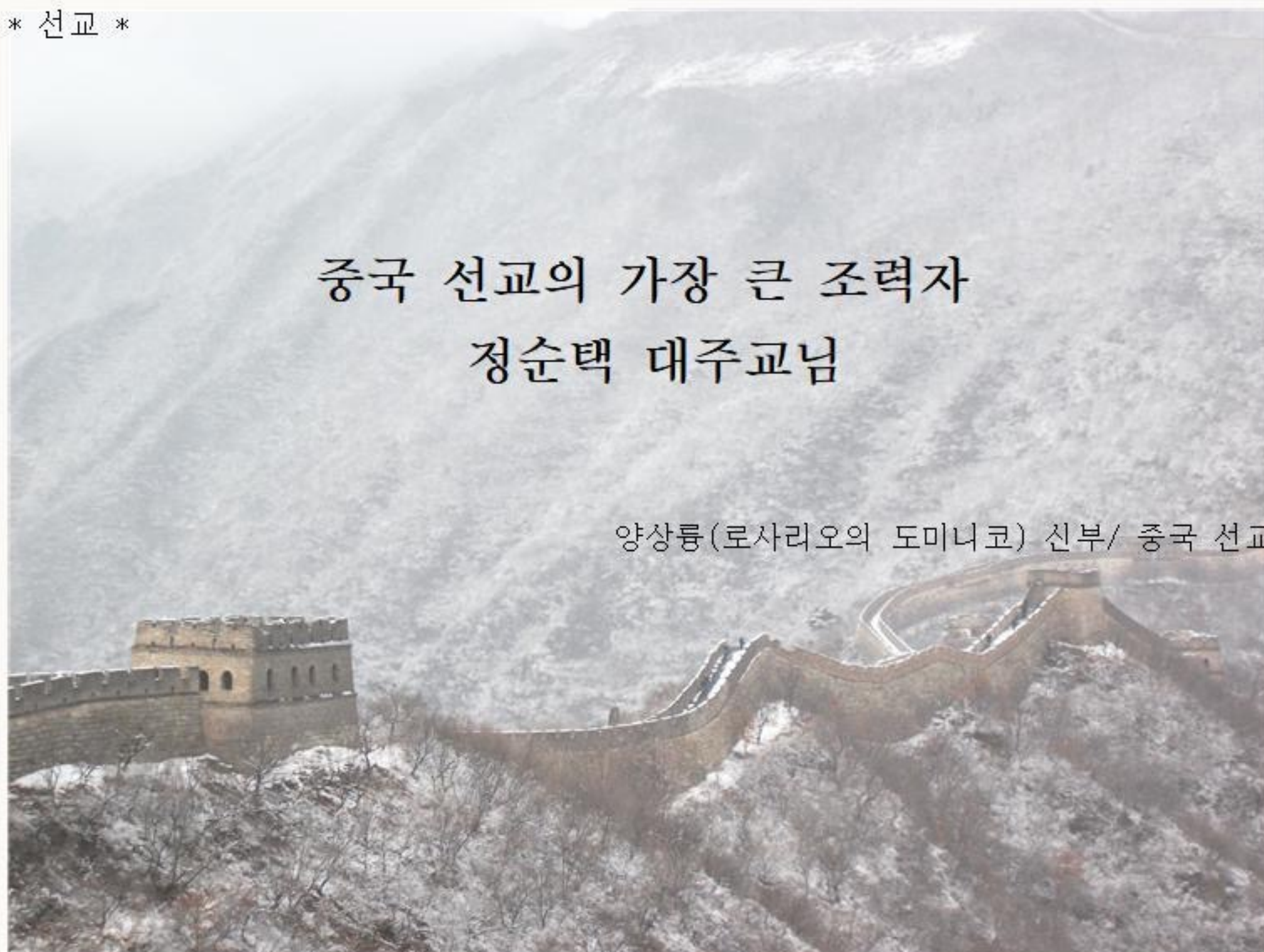
이 시에서 나오는 고유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도밍길료(Dominguito)**는 도밍고(Domingo)의 애칭이고, 그 뜻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브라실료(Brasilho)**는 브라스(Bras)의 애칭인데, 원래는 불덩어리라는 뜻을 지닌 말로, 아무 때나 성급하게 화를 잘 내는 화불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요렌페(Yorente)**는 울보, 울내미, 눈물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 주위의 평범하고 불완전한 인간 군상(群像)들을 의미한다.\*

\* 선교 \*



## 중국 선교의 가장 큰 조력자 정순택 대주교님

양상룡(로사리오의 도미니코) 신부/ 중국 선교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이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이 된 후 여러 곳에서 정대주교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문의가 오곤 했다. 아마도 내가 가르멜 수도회 내에서 정대주교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한 사람이었고 또 사제서품을 함께 한 동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확히는 내가 정대주교님의 서원 1년 선배였지만 정대주교님이 일반대학 졸업 후 신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을 한 관계로 나오는 신학교 3학년부터 종신서원, 사제서품까지 졸업 함께 했다. 이렇게 대주교님이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서원 동기들보다 더 길다 보니 서품 동기인 내가 수도원 내 누구보다 그분을 더 잘 알았을 것으로 여겨 내게 연락을 한 듯싶다. 어쨌든 정대주교님과 같은 연배였고 또 같이 신학교에 다니다 보니 그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선교에 관련해서 그분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선교의 현장에 발을 디딘 지 만 10년하고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교 사목을 하게 되리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내가 선교에 대해서 제일 처음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가 30여 년 전 정순택 베드로 수사였다. 그 당시가 아마도 대신 학교 3학년 즈음으로 기억된다. 인천 계산동 수도원에서 혜화동 서울 가톨릭대학까지 하루 4시간을 전철과 버스로 함께 통학하다 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베드로 수사에게 “야! 베드로, 난 나중에 한국 가르멜 수도회에 내가 없어도 된다면, 선교를 가고 싶다.” 하고 말했고 또 베드로 수사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내 말을 듣고는 흘려보내 버린 적이 있었다.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한번 얘기한 것이었고 베드로 수사도 친구의 몽상을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들어주는 것으로 끝냈던 대화였다. 하지만 그 막연한 꿈이 실현되리라고는 나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

었고 또한 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수사 역시도 그러했으리라 본다.

한국에 가르멜 수도회가 창립되고 창립자 수사님들의 한국 가르멜에 대한 관점이 출공 한국인들의 심성에 맞는 가르멜, 즉 활동과 사도직보다는 기도 중심의 가르멜 수도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 밑에서 양성을 받아온 우리 역시도 본당,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사도직에 대한 양성을 받을 수 없었고 오로지 기도만을 강조하는 양성만을 받았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르멜이 사도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다수의 우리 형제들이 외국 유학을 통해 유럽에서의 다양한 사도직에 봉사하는 가르멜 수도회의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도직들에 대한 시도나 논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심성에 맞는 기도 중심적인 한국 가르멜’을 만들고자 한 창립자 수사님들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사도직에 대한 양성의 부재로 감히 새로운 사도직을 시작할 용기가 부족하였고 대신에 이미 안정적인 기존의 삶에 안주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2005년도 1월의 한국총회에 로마 총본부 루이스 총장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시 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교구에 창립 준비 중이던 수도원 건물과 교구 비준 등을 보고하기 위해 한국총회에 참석 중이었다. 총회 중 로마로부터 갑자기 날아든 총장님의 중국 선교에 대한 요청은 총회에 참석한 단 한 명인 나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에게는 전혀 희소식일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일을 요청하는 총장님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

만 선교는 나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꿈, 정말 현실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꿈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고 기쁨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당시 선교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준비 중이던 공동체 설립을 마무리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대신 다른 형제가 중국 선교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듣고 나 또한 임기를 마치고 중국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남기고는 ...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공동체 설립과 법적인 절차들을 마무리할 때쯤 당시 관구참사였던 정순택 베드로 신부가 미주 재속회원들의 연피정을 위해서 미주 공동체를 방문하였다. 그때 당시 베드로 신부가 “도밍고! 도밍고는 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며 물었다. 총회 때의 나의 선교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궁금했었던 듯싶다. 왜 내가 선교를 원하는지? 혹시나 내가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교를 감당치 못하고 펼쳐만 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공동체 전체가 선교 사목을 원치 않는데 나 혼자만 선교를 주장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었던 듯싶기도 하다. 어쨌든 난 베드로신부에게 “베드로, 내가 선교를 원하는 이유가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또 선교를 했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하는 맘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남은 삶을 모두 투신할 결심으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러니 그제서야 친구이자 동료 신부의 선교에 대한 의지를 조금은 이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온 관구참사이자

동시에 광주 학생수도원 원장이었던 베드로 신부는 “자신은 다른 형제가 선교를 원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선교를 원하지 않는다.” 고 했다는 말을 들었었다. 원래 베드로 신부의 성향은 부드러우면서도 윗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반듯하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가르멜을 창립하신 선배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친구로서 그의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듯했지만 그래도 모든 가르멜의 형제들이 사도직에 대한 교육과 양성을 못 받았으니 그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찌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내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왜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고자 하는지?

정녕 하느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기도 하다. 정 베드로 신부가 남가주 공동체 방문을 한 지 2년쯤 지난 후, 내가 한국으로 귀국해 선교를 준비하기 1년 전쯤에 정 베드로 신부가 로마의 동아시아 담당 참사로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그가 세계 선교담당 참사가 될 줄이야 그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활동과 사도직보다는 우리가 양성 받은 대로 기도와 관상을 더 선호하였던 베드로 신부였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 선교담당 참사가 된 후로는 그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한국 관구 내에서 선교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 놓고 반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중국에 파견되어 나간 2011년 4월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서 로마에서 중국 북경으로 나를 만나러 날아와 격려해 준 그의 우정,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던 더없이 고맙고 고마웠던 친구였다. 그의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과 도움으로 중국 지원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중국 지원자들의 양성에 도움을 준 것을 비롯하여 중국 지하교회 가르멜 수녀들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심지어는 총장님과 동반하여 중국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가기도 했었다. 이렇듯 그는 나의 선교의 후원자이자 가장 큰 조력자로 도움을 주고 있었었다. 하지만 내가 중국 선교를 시작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서 나를 떠나서 슬프게 만들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만 가르멜을 떠나게 된 것이다.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선임 되면서 … 난 친구가 주교가 된 것을 기뻐해야 했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다. 친구를 잃었다고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 서운한 맘을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다. 그러자 당시 북경에 있던 의정부교구 신부가 내게 “신부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친구신부님을 잃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교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하였다.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지금 그가 가르멜을 떠나지만 어쨌든 그동안 하느님의 뜻으로 나를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선교가 탄력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는 그분을 떠나보내자! 큰 십자가를 진 친구를 위해 기도로 도움을 주자!” 하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게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이 정식으로 수도회를 떠나 서울대교구로 가시는 날 주교님을 모시러 온 신부가 바로 내 친동생 양장욱 베드로 신부였다. 동생 신부가 당시 청소년국 국장이었기에 당시 청소년국의 책임 주교로 발령받은 주교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으니 이 또한 참으로 다행스런 우연이 아닌가 싶었다. 친구 주교님을 낯선 별판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동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니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었

다. 동생 신부도 나를 주교님과 3년여를 살면서 주교님의 서울대교구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본다. 이렇듯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은 나와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내가 주교님과 대화 시 또는 전화를 말할 때 경어를 사용하면 나를 편하게 해 주려 그냥 도밍고! 도밍고! 하고 편하게 말을 놓는다. 그럼 나도 조심스러이 말을 놓곤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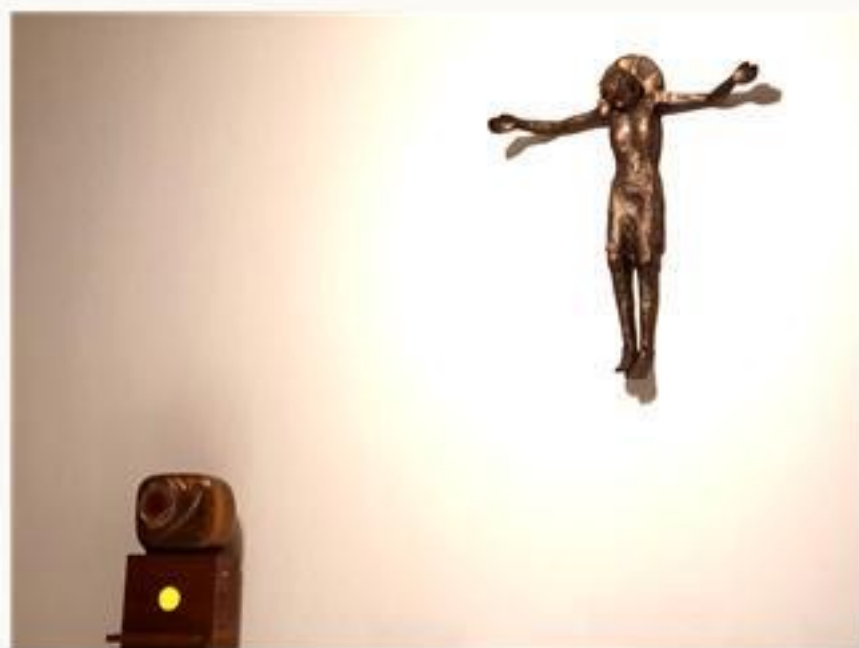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정순택 대주교님은 가까우면서도 더 먼 분이 되어가는 듯하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도회 출신의 서울대교구장님 즉 서울대교구 대주

교님이 되신 것이다. 상징적으로 한국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서울대교구의 대교구장님이시니 아마도 조만간 몇 년 안에 추기경님이 되실 것이고 그럼 나와의 사적인 관계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친구를 서울대교구 신자들에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내드리련다. 나는 그대로 중국 선교에 내 남은 삶을 매진하면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우정을 이어가려 한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큰 짐을 나눠지고 그분 또한 기도 중에 중국 선교를 위해 도움을 주시리라 믿는다.\*



화석정에서

\* 성소 \*



## 가르멜로(路) 74-55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는 의미이고, 세월은 우리 안에 어느덧 무언가를 조금씩 쌓기 시작합니다. 어떤 추억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씩 우리 안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것들이 자신 안에서 조금씩 더 명확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리는 비였는데, 피하려고만 했던 비였는데, 비가 내리면서 퍼지는 흙냄새와 더불어 약간 비릿한 비 내음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시끄럽기만 하던 빗소리가 콘서트홀에 울려 퍼지는 명곡의 클래식 음악같이 좋아집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조차 미술관에 전시된 명작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워집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닫기 바빴는데, 이제는 창문을 활짝 열고 비를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전에 의미 없던 것들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조금씩 세상을 좀 더 하나씩 세밀하게 보면서 깊게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수도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그 길을 걸어가며 그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멜의 길은 내 안에 하느님을 쌓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길입니다.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어떤 점이 좋은지 명확해져 가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가는 길입니다.

가르멜의 길은 그분을 만나는 사랑의 길입니다. 세월이 쌓여가듯, 그분과 만남이 자신 안에 쌓여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만나다 보면 그분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조금씩 닮게 되는 사랑의 길입니다.

만약 자신 안에서 그분과 만남을 즐길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성소문의 :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에둘러 온 길, 그것이 지름길이였다네!

### 1. 프롤로그

#고즈넉한 길, 그 끝엔 수도원의 마당. 나무들이 비켜선 산책길과는 사뭇 다른 정취를 풍긴다. 성 요셉 상이 수도원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인적 없는 마당의 쓸쓸함, 회색빛 하늘, 닫혀있는 문, 그 안엔 누가 살고 있을까?

### 2. 갈색 수도복과 망토, 그리고 목도리

#초인종을 누르니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내레이션** :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다. 부엌에서 나오는 길이란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회색 앞치마가 근사하게 어울렸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작은 방, 몸에 스민 한기를 추스르며 마주 앉았다. '당번이신 거냐?' 웬 부엌일이냐고 물었다.

**박종인 신부** : 가만히 있느니, 설거지며 손가락 통 정리, 자외선 소독기, 주방 청소 등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손을 자주 움직여주는 거지. 뭐라도 하면서... (일어서시며) 발이 시려서 양말을 좀 갈아 신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줘요. (다시 들어오시며, 두툼한 갈색 망토랑 갈색 목도리를 옆에 내려놓으신다.)

겨울에 입는 망토인데 참 따뜻해. 이 목도리도 가르멜 수녀님이 뜬 거 내가 갖고 왔어요. 없었으면 아쉬울 뻔 했어.

**내레이션** : 가르멜 수도복 위에 조끼를 끼입고, 위에 두꺼운 망토와 갈색 목도리까지 두르니 참으로 가르멜인이셨다. 갈색이 이리도 잘 어울리시다니! 내친김에 물었다.

**박지현** : 신부님께서는 '수도복을 고집하신다.' 는 소문이 있던데요. 저 역시도 신부님이 사복을 입은 모습을 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박종인 신부** : 응,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안 입으면 불편해. 나한테는 이게 정복이야. 이걸 벗으면 넥타이며 셔츠며 치장할 게 많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죠. 소박하게 사는 거지.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얼마 전에 갈색이 가난한 사람들의 색깔이라고 말



솜하시더라고….

**내레이션** :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색깔인 갈색 수도복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옷이 된 거라면, 진정 자기만의 옷, 자신을 가장 빛낼 수 있는 맞춤옷을 입은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

### 3. 인텔리 청년의 신념을 흔든 하느님의 물밑 작업

**내레이션** : 경기도 파주의 시골집. 10남매 중 여섯째 자식으로 태어나 너무나 힘이 겹던 시절을 함께 부대끼며 살았다. 피난민의 신세였던 적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 시작했던 적도, 부모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행복했다.

**박종인 신부** : 아버님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어요. 공자의 말씀 중, ‘의(義)가 아니면 천하를 받지 마라.’ 를 신념으로 여기고 사셨죠. 남에게 절대 폐 안 끼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셨습니다. 거지들을 사랑방에 들여서 밥상을 차려 대접하셨지요. 궁핍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셨어요. 신자가 아니셨어도 사랑으로 사시다, 돌아가시기 전에 대세를 받으셨어요. 엄격한 성품이셨는데,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믿어 주신 거지. 그래서 나는 교리가 아주 쉬웠어요.

**내레이션** : 자식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아버지를 통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 것 같다는 고백, 또 10남매를 낳고 먹이고 입히시며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 덕분에 훗날, 세례를 받고 기도생활을 하면서 성모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지현** : 그 당시에 10남매를 가르치시려

니 부모님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1.4 후퇴 때, 경남 양산에서 3년, 초등학교 다니다 피난민이라 중학교 못가고 1955년 16세에 뒤늦게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회고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진로는 어떻게 됐나요?

**박종인 신부** : 형제가 많으니까 저희는 각자 자기 앞가림을 해야 했어요. 다들 독립심이 강했지. 서강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어요. 1961학번. 그런데 2학년 때 영문학과로 전과를 했고, 당시 재학생 특혜로 화천에서 18개월간 군 생활을 했어. 1964년에 복학해서 경영학과로 한 번 더 전과를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회 진성만 신부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께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은 거야.

**내레이션** : 예수회 출신 교수들과의 인연, 비신자였던 그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전의 장이었다. 이 청년은 명동성당 특강(박고영 신부)에서 종교의 근본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종교와 철학, 신학 이전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 고 생각했다. 신자가 아닌데도 윤형중 신부님의 강의, ‘지성인 교리’ 를 듣게 되었다. 신부님께서 ‘한분 만이라도 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신다면 이 강의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하신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단다.

**박종인 신부** : 서강대에서 하는 미사에 가봤어요. 군에 입대해서도 예비신자처럼 생활하다가 1964년에 복학해서 서강대에서 정식으로 교리를… 진성만 신부님께서 집에서 과외 하듯이 교리를 가르쳐주시면서,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일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돈, 명예, 쾌락, 권세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그걸 강조

하셨습니다.

**내레이션** : 서강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노(老) 수사님. 1964년 10월 4일, 드디어 영세를 했다. 그날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신 날,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선종하신 날(1582년 10월 4일)이더라. 이 젊은 지성인은 어떻게 가르멜과 인연이 닿았던 것일까?

**박종인 신부** : 천국 가기 위한 영혼 구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살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겁이 나더라고... 그때만 해도 수도생활을 몰랐으니까, 대학교수가 되면 그나마 죄를 덜 짓겠구나. 그런 직업을 찾은 거죠. 저는 그곳이 예수회 사제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생 동안 결혼 안하고 하느님만 보고 사는 거,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맘이었지.

#### 4. 의지의 순교, 부르심의 그날!

**내레이션** :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교리문답 1항)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그분께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 세례 후 3개월 만에 수도생활을 결심했던 청년. 하지만 10남매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뜻도 깊었다. 그리하여 선택한 은행원의 길. 합격자 번호 1063번.

**박종인 신부** :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은행 다니면서 낮에 잠

깐씩 명동성당에 들어서 조배하고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도 바치고... 주일학교 교사도 오랫동안 했지. 그때 내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신부님 수녀님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영적독서도 하고, 매일 복음 1장과 서간 1장씩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요. 10년 근무하는 동안...

**박지현** : 신부님, 은행원이 아니라 수도자처럼 사신 거 아니에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담금질하시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남들 사는 것처럼 여자 친구도 좀 사귀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박종인 신부** :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 은행에서 윗분들이 선을 보라고 하면 거절도 못하고 난감했어. 그렇다고 내놓고 나는 언젠가 하느님만 바라보며 사는 수도자가 될 거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몇 번 선을 봤는데, 남들 가는 극장엔 안가고 명동성당 주변을 산책하거나 그랬지. 내 맘은 이미 수도생활에 가 있으니까, 상대에게 괜히 미안하고... 상처받지 않게 돌려서 설명하려다 보니, 아휴! 말도 마...

**내레이션** : 이렇듯 세속을 거슬러 살아내려는 젊은 청년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수도생활이냐? 결혼생활이냐? 그것이 화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박종인 신부** : 성소라는 게... 누가 이러란다고 또 저러란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 제가 가르멜회를 처음 안 것은 1967년이었고, 이듬해에 일본 교토에 가 계신 박병해 신부님과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신부님께서 가르멜은 마르타보다 마리아 역할인 것 같다고... 가르멜과 그렇게 인연이 된 거야. 은행 대리 발령이 나서 부산 가르멜 수녀원 옆에 하숙집을 구하고, 가까이에서 기도생활을 했지. 만일 그때 잘못 빠졌으면 큰일 날 뻔 했지 뭐야. 나한테는 하느님을 배반한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을 뚜렷하게 마주하지 못했을 것 같은... 성모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면서 “애는 안 됩니다.” 하고 막아주신 것 같았어요.

**내레이션** : 그럼에도 계속 들려왔던 유혹의 소리, 스스로 실험을 해보자는 객기가 생겼다. 1974년 한국에 진출하여 삼선교에 첫 등지를 튼 가르멜회에 문을 두드렸다. 기동뿌리가 튼튼한 수도회를 원했다던 그의 바람이 과연 충족되었을까?

**박종인 신부** : 가르멜회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겨울이었는데... 막상 입회한다고 생각하니 감기가 들어서 아프니까 못 들어가요. 라며 하느님께 핑계를 대고 있더라. 마치 치명하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는) 남들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 쉬운데, 그게 나 자신일 땐 다르더라.

**내레이션** : 그렇게 갈망하며 준비했건만... 거의 10년을 수도자처럼 살며 하느님만 바라봤건만... 순교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 사표를 냈다. 은행이 발칵 뒤집혔다. 경력이 안타깝다며 애석해하는 사람

들, 그렇게 신학교 2학년에 편입했다. 1975년, 그의 나이 서른여섯! 스물 초반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려니 쑥스러웠을 터. 하지만 그때까지도 양다리를 걸쳐놓고 싶었던 그, 가르멜 수도원이 아닌 집에서 등교를 했다.

**박종인** : 그때 내가 수도원에서 자고 신학교 다닌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다녔는데,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날,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 울고불고... 맘이 너무 심란한 거야. 형님한테 전화해서 내 짐 치웠냐고 하니까, “짐이야 다시 가져오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 또 은행에다 내 사표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본부로 올라갔다고... 보류해놓을 수 없냐고 하니까 “(수도원 입회가)얼마나 어려운 일이나. 36년 동안 뿌리박고 있던 큰 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건데.” 하시면서 안타깝게 보시더라고. 그 길로 명동성당 성모상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는 순간, 내 생각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죽는 것 같았어요.

**박지현** : 신부님, 그 말씀 듣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나죠? 얼마나... 얼마나 내적 줄다리기를 하셨을까...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느님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셨을 텐데... 신부님께서 오매불망 꿈꿔왔던 수도생활은 어땠던가요?

**박종인** : 그때 깊은 안도감을 체험했어요. 하느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수도원 곳곳에 열음이 열 정도로 추웠는데 견딜 만했어요. 순교자가 배교할 때, 마음이 엄청 힘들었겠구나. 그런 맘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 입회 때부터 완덕의 길을 잡았어요. 그리고 소화 데레사 성녀께 9일기도를 바치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종을 치는 종지기

를 했어요. 그땐 종이 없어서 사찰에서 사 온 목탁을 종이려니 하고 썼어요. 잠은 잘 못 잤지만 저에겐 큰 수련이 됐어요.

##### 5. “그래, 아들이! 여기까지 잘 왔다.”

**내레이션** : 바쁜 수도원 생활. 1년을 잘 해냈다. 라틴어, 희랍어 공부는 쓸데없는 분심을 없애주었다. 최민순 신부님은 그 시절 돌아가셨는데, 하느님께서 축망받던 은행원을 세속의 숲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다며 감탄하셨단다. 완덕의 길을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피와 살이 되어주고, 뼈가 섞이는 듯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다.

**박지현** : 신부님, 지난날 걸어오신 길을 보면, 성소 응답을 목전에 두고 흔들릴 때, 성모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네요. 예수회에서 시작된 성소의 씨앗이 가르멜회에서 열매를 맺으신 거고요. 성모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군요.

**박종인**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가르멜산 성모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박지현** : 신부님,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이야기 나눌까요? (고개 끄덕이는 신부님의 모습 뵙고 나서) 참, 여쭙볼 게 있어요. 신부님께서 지금도 김치를 담그시나요? 재속회원들 사이에서 김치 박사, 김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박종인** : 응 그거… 내가 예전에 마산에서 김치를 대량으로 많이 담갔었지. 나만의 비법이 있어요. 하룻밤 새고 배추 절이고, 속을 버무릴 때 하룻밤 또 새고 그랬어요. 봉

사자들이 500킬로 고무 대야에 속을 준비해서 넣어 주면 내가 혼자 다 버무렸어요. 속 양념은 새우젓이랑 생새우만 넣고 볶음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비결이에요. 절일 때도 물과 소금을 적당량 섞어서 해야 돼요. 여럿이 함께 오랫동안 담그면서 터득한 비법인데, 나름 과학적이예요. 열무김치, 나박김치 담아서 최고 신맛이 날 때까지 익혔다가 먹으면 (엄지 척 해 보이며) 코로나 백신급 김치가 따로 없다니까!

**내레이션** : 빨리 들어가는 것 같은 김치 비법 강의. TV나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명강의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 수사님의 얼굴이 새록새록, 기쁨의 빛으로 물들었다. 인터뷰를 멈추고 빨리 돌아가서 열무김치를 담가야 할 것 같은 욕망이 솟구칠 정도로 말이다. 은행원 출신답게 꽤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비법들. 맛이 있을 수밖에! 허나 김치를 맛나게 담가서 공동체 형제들과 나눠 먹겠다는 신부님의 사랑이 가미됐기에 먹는 이, 만드는 이가 더 행복했을 거다. 이렇듯 살갑고 따뜻한 수도원 생활! 그 예전, 두 번째 찾아온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다음 호에 계속)



\* 순례기 \*

## 18일간의 숨바꼭질(8)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도착 - 아우슈비츠 제 2수용소

조식 후 브레슬라우를 떠난 버스는 회색 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땅끝에, 지상의 풍경이 낮게 엮드러듯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네로 접어들었다. 현지 가이드 형제님은 목적지에 다 왔음을 알리면서 짧은 설명을 덧붙였다. 회원들은 잠에서 상념에서 깨어나 앉는다. 옆으로 보이는 철로는 예전에 이곳이 광산이었을 때부터 써왔던 것이고 유대인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일부러 만든 철로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네에는 비품 창고나 농산물 보관소 같은 느낌이 나는 단조로운 건물들이 몇 군데 있을 뿐이다. 버스에서 내려 가이드 형제님의 지시대로 이어폰을 끼고 길을 나섰다.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띄엄띄엄 걸어 다니고 있다.



아우슈비츠 제 2수용소 입구

입구에는 그 당시 사무실로 썼다는 긴 붉은 벽돌 건물이 가로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로 기차가 통과하는 통로가 뚫려 있다. 철로는 양쪽 두 줄이다. 이곳은 도착하는 길임과 동시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의 종착지였다.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 들판, 판잣집같이 생긴 긴 막사들의 대열. 철조망 그리고 감시탑과 사다리...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의 넓게 난 주도로를 가운데로 막사는 양옆에 즐비하였다. 아주 영성하게 만든 영화 세트장 같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추위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떠났을까?

5월이 막 시작된 지금은 풀밭 위에 노란 민들레... 이곳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니 성녀가 이곳으로 실려 왔을 8월은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였을 것이다.

가이드 형제님은 길의 중간 지점에 이르자 성글게 짠 철문을 지나 양옆 막사로 통하는 길 중 왼쪽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기차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서 선 곳입니다.”

모두 무의식적으로 발밑을 내려다본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옆으로 검은 대리석 표지판이 서너 개 짝을 이루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는 기차에서 막 내린 이들을 촬영한 흑백 사진이 들어 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사진 속 그 자리였다. 우리

는 역사 안에서 지금 겹쳐져 있다. 단지 70여 년의 시간 간격 안에서.



“이제 막 기차에서 내린 이들의 모습이 지요? 맨 앞에 이분들을 보세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새 터전을 일구는 것이라는 나치의 말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엿보이지 않은 채 맨 앞에 이 두 분은 서로 잡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치는 이들에게 떠날 때 지니고 온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가방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나치의 말처럼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지요. 가방에는 옷가지, 신발, 집 열쇠와 장신구들이 들어 있고, 가방 밑을 뜯어서 꿰맨 곳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곳에는 전 세계의 지폐가 수북했다고 하지요.

이들 중 75%의 사람들은 하차 직후에 바로 희생됩니다. 사나흘씩 기차로 실려 왔으니 길고 지루한 일정에, 답답한 기차 안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을 잠재우고 새 터전이라는 이곳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가 새로 개척해서 살아야 할 곳이구나, 다들 이런 생각으로 서 있었겠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와 백발의 노인이 있는 대열이 위쪽으로 난 길을 향해 걷고 있고 나치 장교가 그쪽을 향해 손

짓하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우리가 보는 바로 저 길 위쪽인데요, 실제로 저쪽에 화장터가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저곳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성녀도 이 길을 바로 걸어간 것입니다.”

형제인 듯 손을 잡은 채 걷고 있는 어린 소년들의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길고 힘들었을 기차 여정으로 행색은 초라하고 후줄근하다. 사진 속 대부분 사람들은 말랐고 가슴에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노란 별을 붙이고 있다. 덥고 좁은 기차 안에서 보채는 아이를 힘들게 보살피며 이곳에 당도했을 젊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안고 화장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1943년을 기점으로 나치는 더 이상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장의 사진을 찍고, 고향과 생년월일을 작성하던 것을 멈추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을 모두 이곳으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신상명세서 대신 문신 작업을 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왼쪽 팔,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에 새겨진 문신입니다.

1수용소는 3만 평이고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습니다. 여기 2수용소는 소련군 포로와 유대인, 그리고 집시들을 수용하고 죽이는 곳으로 2,3,4,5번 가스실이 있어서 학살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여기는 무려 54만 평이나 됩니다.

나치는 나중에 나무숲에 2개의 화장터를 더 짓습니다. 폴란드의 숲은 길고 험합니다.”

나치 만행에 대한 많은 다큐 기록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약간 기울 듯 아래로 난 화장터 입구로 들

어가기 위해 긴 줄을 잇고 있는 유대인들 바로 옆에, 의자 높이의 긴 시설물 위에 젊은 남녀 나치 장교들 10여 명이 웃으면서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었다. 그들의 밝고 건강한 얼굴, 그늘 하나 없는 밝은 웃음은 흑백 사진 안에서조차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사진들 중 멀리서 화장터로 들어가는 긴 줄의 유대인을 찍은 이 기록 사진 속에 우연히 찍힌 웃고 있는 그 젊은 남녀 나치 장교들을 더 오래 못 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조한, 평범한 이들을 불현듯 접했기 때문일 것이다.

잉겔 솔이라는 독일 여성이 자신의 두 동생의 죽음을 증언한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소책자가 있다. 독일 대학생이었던 그들은 자기들을 '백장미파' 라고 칭했다.

'한스 솔과 소피 솔'

뮌헨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두 사람과 그들의 친구는 1943년 2월 18일 전단지를 뿌리다가 그 학교 수위의 고발로 체포된다. 체포되자마자 게슈타포에게 끌려가 잔인한 고문과 취조를 당한 나흘 뒤인 2월 22일, 빠르게 처형된다.

마지막 면회에서 어머니가

'이제 너의 방은 언제나 비어 있겠구나.' 하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말을 하자 소피는 '엄마 1, 2년이면 끝날 거예요.' 하며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나치의 파멸을 확신하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저들의 파멸 뒤에 오는 자유의 날을 확신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마저도 초연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유대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정치적 반대파, 노동자, 성직자가 희생되는 것을 바라만 보

는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의 만행을 고발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 백장미파는 전단지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위해 불의의 세력에 저항해야 함을 소리 내었고 사람들의 비겁함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의 허구와 비인간성을 폭로하였다. 여섯 번째 전단지를 배포한 날, 그들은 나치 당원인 그 대학 수위에게 발각되었다.

"이토록 눈부시게 햇살이 찬란한 날에 나는 떠나야만 하는구나. 이 시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어야만 하나? 희망에 가득 찬 젊은 생명이 또 얼마나 많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수천 명의 의식이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죽음도 헛된 것은 아닐 거야." (소피 솔)

가이드 형제님은 길 위쪽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거기에서 화장터를 가리켰다. 다크멘터리 기록으로 보았던 대로 화장터는 약간 기울 듯 길이 아래쪽으로 나 있고 지붕은 내려앉았다.



무너진 화장터

"소련군이 쳐들어오자 본인들에게 가장 치욕이 될 만한 시설물들을 급하게 파괴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망치면서 파괴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지나 중간 지점에서 지붕을 통해 가스가 주입되었습니다. 더 안쪽은 소각실입니다. 아직도 굴뚝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온 유대인들에게 여기를 샤워실이라고 했고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 여러분에게는 흰 빵과 차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소각할 시체가 너무 많아 저기 건너편으로 보이는 숲속에 두 동의 소각실을 더 지었고 그들은 밤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 철길이 끝나는 곳에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물들을 보면 나치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도시 빈민층인 집시들과 동성애자들까지도 다 희생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보살피고 있던 고아 집시들이 한꺼번에 나치에게 희생당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기록물은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 뜰에서 수녀님들과 왈츠를 추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곧이어 이 흑백의 기록물은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위에 애잔한 곡으로 영상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다음 장면은 그들이 다 떠나버린 후의 텅 빈 학교였다. 아이들이 모두 수용소로 실려 간 후였다.

### ‘철길이 끝난 곳’

기념물 앞에서 뒤돌아보면 칼로 자른 듯 두 줄의 철길이 끊어져 있다. 길의 끝이었다. 우리는 철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찍은 사진을 보니 얼굴들이 모두 딱딱하게 굳어있다. 처참한 심경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철길이 똑 끊긴 길옆으로 반파되어 무너진

화장터가 있고 그 뒤로 네 개의 기념비석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그곳에 서서 주모경을 바치고 묵념을 드렸다. 민들레는 지천인데 새가 울지 않는다. 새가 없는 곳. 건너편에는 깊은 숲인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새가 울지 않네요?”

“아, 그럴네요.”

한 시간이 훌쩍 흘렀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생가를 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버스로 되돌아가는 길에 콜베 성인의 모습이 담긴 팸플릿이 거리 한쪽에 길게 걸려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콜베 성인이 머무르고 독살당했던 방을 가는 것이 이번 우리 일정에 있다는 기억이 났다.



길의 끝

(다음 호에 계속)

\* 공동체 이야기 \*

## 가르멜 산길에서 뒤를 바라보며

인천 아기예수의 데레사 공동체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  
야 할 길로 인도하는 이다.” (이사야  
48,17)

주님께서 인천 아기예수의 공동체를 어  
떻게 이끌고 계셨는지 돌아봅니다.

인천 아기예수의 데레사 공동체는 수원  
교구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재속회에서 분리된 수원교구 소속회원들과  
성 라자로 마을에서 초대원장이시며 재속  
회원이셨던 故이경재 신부님에 의해 시작  
된 라자로 재속회와 통합되어 수원 십자가  
의 성녀 베네딕타 공동체가 창립되었고 월  
모임은 성 라자로 마을에서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237명이었으며 매년 거의 지원자  
가 20~30명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회원 수  
의 증가로 수원, 분당, 용인지역과 그 외  
의 지역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자로 마을에서 나와 분당, 용인지역으로  
뿔어져 2006년에 ‘수원 예수의 데레사’ 이  
름으로 창립이 되어 수원교구 교육관에서  
새롭게 등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수원교구 방침으로 교구 내에 한 공동  
체(베네딕타)만 인정한다 하시기에, 우리  
는 수원교구에서 월모임을 할 수 없게 되  
어 교육관에서 우리의 현재 울타리인 인천  
수도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천 수도권에서는 3개의 공동체들  
이 월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팀이  
‘예수의 데레사’ 가 후보 성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보 성녀를 ‘아기 예수의  
데레사’ 로 모시고 그동안 파란만장한 시  
간들은 뒤로 하고 인천 수도권에서 우리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여, 우리 정답게 올라갑시다.  
내가 인도하는 길은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  
나라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에 분명 이 길은 사랑이신 하느  
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린이의 길)

월모임 날에 우리는 집에서 나와 마을버  
스를 타고 가서 수원팀은 권선동 성당에  
서, 분당팀은 미금역에서 두 대의 단체버  
스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천 수도원  
으로 향합니다. 가는 동안 마음을 모아 함  
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한 시간가량 고속  
도로를 타고 인천 가르멜 수도원으로 갑니  
다. 때때로 길이 밀리거나 눈이 올 때 또  
는 교통사고를 만날 때에는 월모임이 늦어  
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구역모임만은 교구  
신부님의 배려로 요한 성당과 권선동 성당  
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들과 은행  
나무, 살구나무와 야생화가 우리를 맞이합  
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아름답게 치장하는  
나무들과 꽃, 마지막까지 한쪽에 외롭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주차장에서 피정의 집  
으로 올라가는 사잇길에서 보이는 종탑은

정결기만 합니다. 피정 때, 사순시기에 또는 점심을 먹은 후 시간이 있을 때, 종종 좁은 오솔길 따라 자연스럽게 꾸며진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수난으로 인도되어 어느 사이 주님의 고통이 다가오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기도 합니다. 12시가 되면 계산동을 감싸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타종 소리에 맞춰서 함께 삼종기도를 한 후 점심시간을 가진답니다.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에서 거닐던 우리”

(시편 55,5)

인천에는 4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 봉사합니다. 부활맞이 수도원 대청소와 김장 봉사는 매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모임 날짜가 다 달라서 4개 공동체가 교류를 갖고 친목을 다지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수도회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 청소와 김장 봉사에는 4개 공동체 합쳐 20~30명 정도가 모입니다. 처음 만나는 회원일지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 팀, 저 팀 할 것 없이 일손을 도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힘든 줄도 모르고 해야 할 일들을 척척 해나갑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모범적인 회원님들은 생활의 달인들이셔서 똑딱똑딱 주어진 일들을 하십니다.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친교와 나눔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일이 끝나면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더욱 배가 됩니다. 그 후에 다 함께 모여 먹는 점심식사는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견줄 수 없는 행복이고 감사함이며 때때로 수사님들께서 손수 심으신 무를 주셔서 들고 집으로 올

때에는 콧노래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벌써 창립 후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5월 야외 월모임 때에는 수도원 마당에서 신부님과 함께 윷놀이, 신발 멀리 던지기 등도 하며 한바탕 손뼉 치며 마음 놓고 웃고 즐기기도 하고, 성지를 돌아보기도 하였으며, 구역별 장기자랑도 하고 마음 모아 연극도 준비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르멜 수녀원들을 돌아가며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서 해맑은 미소 속에 행복해하는 수녀님들과 창살을 사이로 정담을 나누며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

수도원 순례 중 지금 서울대교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광주 수도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야외 월모임을 광주로 갔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 어귀에 내려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수사님들께서 자전거를 타고 신학교를 가시던 길,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시면서 걷던 길을, 우리도 마음 설레면서 동네를 지나고 저수지를 지나서... 길가 옆에 이름 모르는 사람의 묘비를 만나며 그 영혼을 위해 화살기도도 하면서 걷다 보니 산 밑에 자리잡은 광주 수도원이 우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정 대주교님과 수사님들께서 마중해주셨습니다. 수사님들께서 오락 준비를 해주셨기에 우리는 수사님들이 이끄시는 대로 게임을 하면서 손뼉 치고 이리저리 뛰며 어린이처럼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대주교님과 성무일도와 미사를 하기 위해서 성당 2층을 올라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없음이 아니라 나의 없음이다.”**

이 말씀을 그날 이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가면서 먹으라고 주셨던 김으로 짠 그 주먹밥!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무지와 사랑만을 넣고 주먹으로 꼭 ... 짹.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먹었던 그 꿀맛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86,4)

오늘도 오랜 역사 안에서 가르멜의 삶이 묻어있는 수도원 마당의 성모님 동산을 걷

습니다. 그동안의 작은 아픔의 그림자들은 지워가면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그동안에 침묵 속에 있었던 공동체 동반자들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다시 생동감이 넘치는 가르멜의 등반이 될 수 있도록 ... 가르멜 재속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애덕 안에서 완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 성모님께 고개 숙이며 두 손 모아 전구를 청합니다.\*



\*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 관계의 삼각형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트라우마는 보통 몸에 기억을 남긴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고, 관계가 잘못되어 고착된 애착 트라우마가 있다. 거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좀 덜, 누군가는 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기도생활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거나 과거 불안했던 사건과 비슷하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 몸은 여기에 있으나 생각과 마음은 과거 거기에 가 있는 상태가 되어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혼자 애써보지만 그것에 직면하며, 스스로 돌보고 처리하는 영적, 정서적, 심리적 경험이 부족하기에 힘들다고들 한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여러 콤플렉스를 안고 태어나, 트라우마 상태(박해, 조롱, 따돌림, 배신, 수치심, 억울함, 외면, 버려짐, 외로움, 비참한 죽음)에 노출되어 사셨다. 또 소화 데레사와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어릴 적 엄마를 잃었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아버지를 잃으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트라우마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유아기나 유년기에, 부모의 부재나 역할 상실로 보호받지 못한 채, 위기의 감정을 혼자 겪어낸 흔적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감당했을 불안, 공포, 두려움, 슬픔, 수치심, 외로움 등의 감정은 어른도 견뎌내기 힘든 것들이다.

그 트라우마는 처리되지 않은 채 고스란

히 남아, 정신과 마음, 몸에까지 흔적을 남겨 평생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 속, 솥뚜껑으로 각인된다.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어른이 되었음에도, 그때와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만 보면, 예전의 사건으로 착각하여 과거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기억에 갇혀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다. 무서운 개에 물린 아이라면 비록 강아지일지라도 나를 물 수 있다고 경계하거나,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무섭고 공격적인 대상에겐 거리를 둔다. 언젠가 나를 해칠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왜곡된 관계에 의한 애착 트라우마 역시 영적 생활과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삼각형 관계가 떠오른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습득되고 경험된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나의 경우,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드신 아빠와 약하고 무력했던 엄마. 그리고 맏 딸인 나. 이렇게 삼각형 관계가 형성되었다. 아빠는 무섭고 자기중심적이셨다. 매사를 통제하셨고 잘하고 못하고의 상벌이 강하셨다. 엄마를 괴롭히고 자주 다투셨다. 나는 아빠가 무서워 눈치를 봤다. 하지만 잘하면 칭찬하고 인정해주셨기에, 뭐든 잘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가 주로 경험한 감정은 분노, 불안, 공포, 두려움, 수치감, 슬픔, 외로움, 억울함이었다.

엄마는 늘 당하기만 하는 약자였다. 외모도 곱고 총명하고 지혜로워 재주가 많으신 분인데도 아빠 앞에선 언제나 무력하고 주눅이 들어 무조건 맞춰주는 모습이였다. 큰 딸인 내게 많이 의존하셨다. 이때의 내 감정은 동정, 연민, 슬픔, 분노, 죄책감, 불안, 걱정, 책임감 등이였다. 삼각형 중 위 두 꼭짓점을 차지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나는 아래 꼭짓점을 이루며 역삼각형 관계가 만들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내 역할은 다툼 때 중재하고, 피해자인 엄마를 위로하며, 그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직면하는 꼭짓점이였다.

그렇게 맺어온 관계의 원형은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그럼자처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멜의 자아인식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게 하느님은 무섭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감시자였다. 아빠에게 잘 보여 칭찬받고 내가 잘해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렸듯이 하느님께도 인정받고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죽도록 분발했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편을 들어주고,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대리 배우자로 살았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약자를 보면 과하게 돌보고 지켜 주고 싶은 마음, 엄마의 희생을 답습하며 나보다는 남을 더 챙기고 희생하는 관계를 맺어왔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무지의 죄와 내 힘으로 중재하고 실현하려는 교만의 죄를 낳게 된 것이다.

“죄는 나약함이나 무지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느님께 마음을 닫는 태도입니다. 내가 열대여섯 살이었을 때 범한 진짜 죄는 내 힘으로

나 자신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깊고 다정한 만남/ 장 라프랑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다. A와 B 사이에 내(C)가 있다고 하자. 정삼각형 또는 역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까? 그 안에 힘 있고 독선적인 권위자가 있거나 엄마처럼 약하고 무력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분명 어릴 때처럼 과하게 중재하거나 해결하려고 애쓰며 잔다르크처럼 행세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그르칠 수 있음을 뒤늦게 터득했다.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정조)은, 어릴 적 아버지의 무참한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라는 두 꼭짓점 중 하나가 사라져버린 삼각형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한 이산의 관계성이 여러 방식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정을 이루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갈망이 컸을 터. 얼마 전 사극에서 이산이 사랑하는 후궁, 의빈성씨에게 청혼할 때,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것들이 치유가 되고 정화되어 주님과 관계 안에서 통합이 되려면 오랜 기도의 시간과 자아인식의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나와 남편. 서로 왜곡된 관계를 경험한 두 사람이 부모가 되어 두 꼭짓점이 되었다. 아래 꼭짓점을 이루는 자녀들은 자연스레 영향을 받으며, 그들만의 그림자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세 살 때 엄마를 잃은 친정 아빠의 트라우마는, ‘또 잘못될까 봐!’ 하는 불안감을 잉태시키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 역시 잘못될까 봐 하는 마음에 가족과 나 스스로를 통제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삼각형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말이다. 서로를 내어주시며 세 위격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다려주시는 완전하고 견고한 삼각형.

하지만 트라우마는 위험한 상태에서 누구의 보호 없이 혼자 감당해낸 흔적이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도망을 가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 감당하며 고통을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고아처럼 혼자서 끌어안고 아파하며, 내 힘으로 다 해내려는 죄를 겪게 되는 듯.

내 삼각형 관계의 원형을 삼위일체 하느님 삼각형에 내어놓고, 그것을 치유해주시고 정화해주시기를 청하자. 그 자애로우신 눈길에 젖어 물들다 보면,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해온 관계의 삼각형을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찌면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조바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가혹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원이 있다. 나자렛 성가정의 삼각형.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꼭짓점과 어린 예수님이라는 아래 꼭짓점. 이 부부 역시 수많은 트라우마와 콤플렉스, 불안과 걱정 등 그림자가 있었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느님 삼각형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가정의 중심, 첫 자리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 어찌 힘들지 않았으랴. 우리들만의 삼각형 관계에 고착되어 갇힌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그 안에 하느님이라는 꼭짓점을 만들어야 할 터. 어릴 적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겪었던 고통의 기억에 힘 있는 하느님, '아빠 아버지' 를 초대하자.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다면, 그런 자신을 만나 안아주고 돌봐주어야 한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다독여야 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알지만, 하느님의 힘과 능력에 기대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습성을 인정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그럼 하느님 꼭짓점 아래,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내가 두 꼭짓점을 이루는 정삼각형 관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주님 봉헌 축일! 소화 데레사 성녀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시간은 오직 오늘 하루뿐' 이라고 하셨다. 그 기적 같은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과거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관계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아기예수님을 봉헌하시려 성전으로 가시는 성모님께 드리면 어떨까?

'성모님, 바지런히 가시는 그 길, 저희의 불편한 기억과 건강치 못한 관계의 상처들도 같이 갖고 가시어요. 이 사람의 무서움, 저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수치심. 그리고 우리 삶의 그림자들을 삼위일체 하느님께 봉헌해주세요. 저희 모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아기 예수이니깐요.' \*

\* 회원의 글 \*

## Blue Days 우울한 나날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원래는 맑게 갠 하늘이나 멀리 보이는 바닷물의 빛깔, 크고 작은 물결처럼 파란색이 주는 이미지는 희망, 밝음 같은 긍정적인 것뿐이다. 우리의 향주삼덕,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덕목 중의 하나인 희망도 푸른색으로 상징한다. 그럼에도 요즘처럼 우울한 기분을 일컬을 때를 Blue Day라 칭하며 푸른색이 등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희망찬 미래를 갈구하는 심리적인 상징어이지 싶다.

문제는 가을의 끝자락 초겨울이었다. 이웃의 형님들과 평일미사 끝에 아점타임을 하며 보냈다. 별일 아닌 일도 수다를 떨면 즐겁고 상쾌해지는 법.

첫 추위가 한창이던 그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엇그제쯤에 다녀간 그댝의 따님이었다. '엄마! 빨리 검사받으러 가세요. 엄마 손자가 확진판정 받았네요.' 길게 늘어선 한 끝에서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황당하고 앞이 안보이던 불안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검사. 가슴이 두근두근. 다음날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의 혼란스러움. 절제로 지친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에서 나도 좀 더 느슨해지고 싶어 같은 하느님의 딸들과 가끔씩 즐겼는데... 그분 뜻은 아마도 영혼의 거리두기를 원하셨는가보다.

그 날 이후로 내 인생의 휴일 같은 일탈은 이렇게 '로마의 휴일' 처럼, '한여름 밤의 꿈' 처럼 스쳐갔고 우리의 소소한 만

찬은 호랑이 꼬리처럼 가늘지만 무섭고 기다란 휴식기에 들어선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뜻을 못 알아들은 척 나만의 자가 격리를 계속한다.

넷플릭스로 영화, 드라마 등을 보면서 우울감, 불안감, 실체가 없는 두려움, 위축감과 불면증을 잊으려고 애썼다. 놀란 가슴이라 매일 미사도 한 주에 1~2번만 나간다. 멈추어 선 수영장과 함께 진창에 잠겼다. 세상의 허물을 파헤치면 깊은 밤,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으니 나 역시 조금 다를 뿐이니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아픔의 틀 안에 나를 가두니 어렵사리 탄생하신 주님도, 새 성전도, 기쁘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서글프다. 팬데믹 발생 이후 잠깐이면 수습이 될 줄 알았던 거리두기는 자가 격리와 마스크 안에서 신체의 물리적인 자제 등 모든 것이 임계점에 다다른 듯 너무나도 고단하다.

이 한 해에도 나를 비롯한 당신 자녀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면에는 저마다의 소원을 풀어 줄 상대가 오셨기에 반가워하는 것은 아닐까... 구유에 누워 계신 아가 예수님의 고운 이부자리가 내 눈에는 초라하고 빛바래어 무겁다.

준공을 즈음하여 새 성전을 둘러보았다. 신축성당의 미리보기, open house를 했다. 300평 단독주택처럼 좁은 부지인데 400명 정도가 들어설 수 있게 알뜰하고 넉넉하고 아담하게 지어진 성전.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름답고 찬란한 빛. 그 빛 안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 고즈넉하다. 감사하니 기쁨의 웃음꽃이 핀다. 신부님의 저돌적인 추진력 덕분이였다. 또한 신자들의 애쓰신 흔적들도 알알이 포도송이로 새겨 놓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성으로 사랑을 보태 주신 일산과 이웃의 여러 성당, 그중의 몇 성당에서는 정말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도움을 주셨다. 또 알토란같은 후원자들도 계셨다. 나는 기쁜 마음도 크지만 우리만 깨끗하고 좋은 입지에서 '하느님의 집'을 마련한 것이 참으로 죄스럽고 고맙다. 하루 빨리 그곳들도 마무리를 할 때에 우리도 함께 손잡을 것이니 따뜻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더욱 더 흐뭇하실 것이다.

보통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위로받고 싶은 경우는 어머니를, 해법을 찾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를 찾는다. 어느 해 연피정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어머니 성모님께서 “네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만 하겠느냐.”는 꾸중 같은 위로를 해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어려움도 풀어주셨다. 이번에도 내 남편은 대출이 이리 많은데 어떻게 신축현금을 내겠느냐며 당연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내 나이에 이사를 꽤 많이 다녔고 몇 개의 성당도 지어 보았지만 이번만큼은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맘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 생각지도 않게 한 자락이 섭섭지 않게 정리되어 가슴 한구석을 채워주셨고 묵은 살림살이도 신바람나게 던져버렸다. 오호, 주님이시여!!

지난해는 베토벤 250주년(1770~1827)이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노래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음악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으로

베토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작품이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모두 9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은 '환희의 송가'라 부른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쉴러의 시를 인용한 '환희의 송가(Ode to Joy)'이다.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억만의 사람들이여 옆드려 빌겠는가.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라.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환희여, 환희여 우리 모두 성소로 들어가자!!!

베토벤이 한 말도 적어본다. “나는 신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의 예술에 더 가까이 있음을 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내안의 신과 의논한다. 나는 내 음악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내 음악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들을 짓누르는 온갖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숭배되었고 후대 작곡가들 대부분이 그가 성취한 것에 압도당한다. 후대에 남긴 그의 영향이 지대한 것은 그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느끼며 온 인류를 사랑했고 한 형제 됨을 희망했기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리라.

어린양 떼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단짝이 되신 우리의 베드로 서울교구장님께서도 올 한해 신년사를 통하여 희망의 날개를 선물하신다.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에즈라 10,2)\*

2022년 4월 구역모임

##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34장 해설: 인류의 만나인 성체

기도하는 이의 양성 과정에서 성체의 의미를 교육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동기를 부여하는 일, 성체 신심, 성체에 대한 체험 등을 교육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성녀는 성체에 대한 자신의 살아 있는 체험을 분명히 입증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것은 성체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복으로서 갈릴래아 땅을 걸었고 또 사셨던 그분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일이다.

성체는 주님에 대한 현존을 내면화하게 해 주는 역동적이고도 놀라운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현실적이면서도 최상의 초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녀는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거둠의 내면화(內面化)를 성사화(聖事化)하게 해 주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1. 본 장의 작성

성녀는 첫 번째 텍스트(초고, 즉 에스코리알 본)에서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하는 가운데 믿음을 살아 내고 그와 관련된 폭넓은 “사안들”을 기도로 가져감으로써 성부와의 대화라고 하는 특별한 순간에 하느님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를 몰아치게 했다.

그러나 검열관은 이런 성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데레사는 그러한 검열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가 지적한 이 페이지 전체를 삭제해 버렸고, 그곳에 다른 것을 첨가했다. 즉 여기에 성녀 자신의 성체에 대한 체험이 다시 수집됐고 이는 성체성사 신

심과 관련된 생활한 가르침으로 고양됐다.

### 2. 성녀가 삶으로 살아 낸 성체 체험에 대한 상기

6절에서 성녀가 언급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찬례의 빵은 육체를 위한 “양식”일 뿐 아니라 심지어 “약”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한다. “이 지극히 거룩한 양식은 육체에도 좋고, 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신통한 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큰 병을 앓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양식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씻은 듯이 나아서 아주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그가 영성체를 할 때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견지했던 무조건적이고 총체적인 믿음에 대해 증거했다. “영성체할 때가 되면 주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육안으로 보옵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주님께 드린 “환대와 머물 곳”(8절)에 대한 체험 그리고 이로 인해 폐부가 떨렸다고 하는 체험과 관련된 숨겨진 암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녀는 『자서전』에서 이 점을 보다 상세히 언급했으며 특히 감동에 젖어 전율하는 가운데 이를 시원스럽게 증언했다.

### 3. 인류의 만나

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청원에서 다음과 같이 반복된 말이 나올까? “매일의” 빵, 그리고 “오늘”을 위한 빵.

성녀에 따르면, “매일”과 “오늘”은 하느님의 계획이 갖는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성자를

“영원히” 주셨다. 이제 그분께 세속적인 삶의 “오늘”을 위해 성찬례의 빵을 청해야 한다. 성체야말로 인류의 역사 내내 인간을 위한 만나였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빵이자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영원 안에서 우리의 삶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양식인 예수님의 육신과 피를 주시는 분은 성부이시다. 이 선물은 벗과 원수 모두에게 주어졌다.

인간이 나쁜 행동과 신성모독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이 빵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성부께 이 빵을 세상으로부터 거둬 가 달라고 감히 청하지 않는다.

#### 4. 그분의 실제적인 현존:

##### “변장하신” 주님의 신비

“우정의 교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데레사의 교육에 있어서 벗의 현존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도하는 이 또는 단순한 신자는 성체에서 풍부한 그리스도의 현존에 부딪히게 된다. 그분은 성체 안에 “변장해 계신다.”

이제 그분은 성체 안에서 우리 손이 미치는 곳, 우리 가까이 계신다.

“이 현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일이며 오롯한 현실이어서 주님을 찾으려고 다른 먼 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8절).

#### 5. 현존과 친교

비록 “변장하시긴 했지만”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거기 계시다는 것,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친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로 거기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다.

친교는 전능하신 주님의 성체적 현존에서 유래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거기 계신다.

둘째로, 그분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통

교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인격 대 인격으로 전하기 위해 바로 거기 계신다. 성체는 ‘그리스도 현현(顯現)’이다. 그분은 세례에서 시작된 계시를 심화하고 연장하는 가운데 바로 거기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성사화(聖事化)되셨다.

인격 간의 이러한 통교에 있어서 열쇠이자 매개변수는 ‘믿음(fe)’과 ‘사랑(amor)’의 단계이다. “드러나게 당신을 알리시거나 은혜를 내리시고 당신의 보화를 주시기는 오직 당신을 몹시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13절). 계속해서 성녀는 ‘원외(deseo)’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강하게 주장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많이 열망할수록, 그만큼 당신을 자주 드러내실 것입니다” (12절).

“주님을 영성체로 받자온 다음에는 바로 그 입을 앞에 뒹이었으니, 모름지기 육안을 감고, 영안을 떠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성체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습관을 기르고... 주님은 비록 변장을 하고 오시기는 할망정...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12절).

“성체를 영한 후가 가장 좋은 시간이니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매들이여, 그 시간에 어른이 떠난 일을 시키더라도 영혼일랑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10절).

우리는 성부께 인류의 만나를 청한다. 이 만나를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친교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친교는 성체를 통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켜 주며 더욱더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고 거둬 기도하고 더불어 우리를 사랑 가득한 대화 속으로 인도해 준다. 성체는 인류의 만나이기 때문이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발췌

\* 회원의 글 \*

## 노년

이정미 (아기예수의 헬레나)  
대구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저마다 가슴에  
훈장처럼  
소설 몇 권씩의 사연을 품고  
황혼 길을 가고 있다

어찌다 실타래 한 가닥 풀리면  
술술 풀릴 법한 이야기는  
가슴에 묻고

인생의 쓴맛 단맛 겪으며  
힘겨웠던 날갯짓  
살아낸 세월이 눈물겨운데

적막한 대지에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청춘을 노래하던 봄날은 어디 갔나  
꽃다운 시절은 꿈이었나

남은 도화지  
오랜 삶이 발효된 물감으로  
아름다운 그림 몇 장 그려 볼까  
세상을 향해  
지혜의 등불 하나  
밝혀 들까

\* 시집 『꽃의 향연』 중에서



## 수도회 소식

### 사제서품식



허선형 어린양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의 사제서품식이 아래 일정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사제로 서품되시는 사비오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가르멜 재속회관
- 주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서품식 참석 48시간 이내 확인 문서 또는 메시지 수신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지난 한해 가르멜 영성 특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가르멜 영성특강은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로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매월 둘째 금요일  
(3월-12월, 8월 제외. 회관 사정으로 인해 3월은 3월 10일, 9월은 9월 16일입니다.)
- 3월 일정: 3월 10일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님 / 주제: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1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참여를 위하여, 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 성시간

날짜	2022년 2월 26일
지도	조성훈 다미아노 신부님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업: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 재속회 소식

###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임종순 성체의 바울라
  - 선종일: 2021. 12. 18 (향년 84세)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 \* 황숙열 예수성심의 쟈마
  - 선종일: 2021. 12. 30
  - 서울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공동체
- \* 염주연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 선종일: 2022. 1. 4 (향년 64세)
  -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허군자 예수성심의 모니카
  - 선종일: 2022. 1. 12 (향년 82세)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 은경축

- \* 대구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날짜: 2021년 10월 25일
- 회원: 최숙자 성모성심의 모니카  
용운기 아기예수의 클라라  
이명희 예수마리아의 막시마  
최옥련 아기예수의 데레사

## 2022년 영성코스 안내 (비대면)

### 과목 안내

- 3월 소화 데레사 영성의 근본 주제들 (정인숙 쟈마 교수)
- 4월 예수의 데레사의 영성과 인간이해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 5월 예수의 데레사의 기도 영성 (박정오 프란치스코 신부)
- 6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소품집과 시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 9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체험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10월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그리스도 체험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 11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과 인간 이해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 12월 십자가의 성 요한의 화해와 기억의 정화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 강사님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 및 수강료 안내

보다 많은 분들이 가르멜 영성을 들으실 기회를 드리고자 수강료를 인하했습니다.  
2022년 전체: 500,000원 - 한 학기 신청: 250,000원 - 한 과목 신청: 75,000원

#### 수강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902-535574

(입금후 010-4149-1853/ 010-6305-5088 수강생 이름과 신청과목 문자 보내주세요)

- 예) 전체 과목 신청 시: 흥길동 베드로. 전체. 이메일 주소
- 한 학기 신청 시: 흥길동 베드로. 1학기. 이메일 주소
- 한 과목 신청 시: 흥길동 베드로. 5월, 이메일 주소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영상 주소를 휴대폰 문자 혹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 영성코스 과목의 모든 동영상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배포하거나 동영상 주소를 신청자 본인 아닌 타인에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 2021년 영성코스 과목 중에서 김광서 토마스 아퀴나스 수사님의 예수의 데레사의 그리스도론을 2022년 상반기에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매달 4강좌씩 올라갑니다.

\* 미술 속 성경 이야기 \*

## 주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Domine, da mihi aquam)

편집부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와 삶의 중심에 언제나 복음을 두었습니다. 성녀의 기도 여정은 복음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우정을 돈독히 해나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녀의 집에 걸려 있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그림은 성녀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우정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은 많은 미술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전에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 미술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림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요한복음 4장 1-42절의 이야기는 그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영원히渴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을 말

씀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여인은 말씀하시는 분을 유다 사람에서 선생님, 예언자로 마침내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확장되었듯이 어린 시절 집에 걸려 있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그림을 보며 자란 성녀 데레사는 그림 속의 요셉의 우물로부터 기도 영성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500여 년 전 성녀 데레사께서 보시던 이 그림을 지금 우리도 성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물에서 성녀의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오! 나는 그 몇 번이고 입께서 사마리아 부인에게 말씀하신 저 생수를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 나는 자주 주님께 이 물을 간청했고,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 장면을 나타낸 그림을 붙여 두었는데, 거기에는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하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Domine, da mihi aquam.  
(주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요한 4,15)”**

(자서전 30,19)

우물에서 나는 무엇을 길어 올리고 있는지요?



성녀 데레사가 소장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림(작가 미상, 아빌라 강생 수녀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한 4,14-15)



### 오래된 마음

“하지만 제 영혼은 그러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평화로워요.”

-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 \* 성녀께서 1897년 9월 30일에 폐결핵으로 선종하시기 며칠 전(9월 24일)에 예수님의 아녜스 언니 수녀님(폴린)에게 하셨던 말씀.